

2008년 2월  
석사학위논문

# 권정생 동화 연구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여 옥

# 권정생 동화 연구

-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A Study of Gwon-Jeongsaeng's fairy tales

- From a Minjung theological point of view

2008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여 옥

# 권정생 동화 연구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지도교수 김 수 남

이 논문을 국어국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여 옥

# 장여옥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차 례

<Abstract> -----	i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1
3. 연구 방법 -----	3
II. 권정생의 민중신학적 관점 -----	5
1. 민중신학의 주요 개념 -----	5
2. 권정생과 민중신학의 비교 -----	8
III.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민중신학적 특성-----	17
1. 사실주의 동화와 역사적 현실 인식 -----	18
1) 민족 분단 상황의 비극적 조명 -----	18
2) 인간 소외와 물질 문명 비판-----	33
2. 우의적 동화에 구현된 민중 의식-----	38
1) 저항을 통한 공동체적 삶의 지향 -----	39
2) 자기희생과 현실의 극복 가능성 -----	43
IV. 권정생 동화의 종교적 의미-----	49
1. 자연에 수용된 하느님 세계-----	49
2. 민중의 구원과 종교적 구원-----	52
3. 비극적 역사 속에 감춰진 소명 -----	53
V. 결 론-----	56
<참고 문헌> -----	58

<Abstract>

**A Study of Gwon-Jeongsaeng's fairy tales**  
**-From a Minjung theological point of view**

Jang. yeo - ok  
Dept. of Korean Lan & Lit.  
Th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treatise studies specific characters in Gwon-Jeongsaeng's fairy tales with a Minjung theological point of view. He was born in Japan-dominated time. His fairy tales came under the much influence of historical experiences of Liberation from Japan and Korean war. And his works were affected by his religion, Christianity. I found his fairy tales have christian characters and his consciousness is focus on Minjung.

This treatise explains that his religious works are connected with “Minjung Theology” made from the situations of 1970, 1980 times in Korea. His christian character in his works is very specific.

When he had thought his works with specific christian character, Minjung Theology substituted for western theology In Korean Churches. Extremely Korean style Christianity was on the rise at that time. That was “Mimjung Theology.”

Minjung is the poor, the alien, the oppressed. And they are the subject of history. God steers history with the side of Minjung. I explain that the characters of his works are connected with Minjung Theology.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권정생 동화의 내용에 나타난 기독교적 특성을 민중 신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작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동문학 교육에서 의의를 지니는 표면적 주제를 밝히는데 머무르고, 기독교적인 고찰은 부분적으로만 다루는 실정이었다. 본고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의 시부야 빈민가와 해방정국에 이은 한국전쟁의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역사적 경험이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고 그의 기독교 의식 또한 작품의 특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그의 기독교 의식의 특성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건져낸 민중신학적 그리스도관에 토대한 것이었다.

작가의 작품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으며, 뼈아픈 고통과 슬픔 뒤에도 희망을 꿈꾸며 잔잔히 파고드는 감동을 안겨준다. 그의 작품 속 인물은 서민적 아동으로 현실의 고통 속에서 도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거듭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며, 하나님이 민중과 함께하는 삶을 형상화 하고 있다.

본고는 그의 작품이 한국사의 70, 80년대의 상황 속에서 탄생하게 된 기독교의 “민중신학”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권정생의 기독교 사상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가 작품을 독특한 종교성으로 구상하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사상으로 서구신학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극히 한국적인 기독교를 대두시켰던 것이다. 민중이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로써 그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민중인 그들의 편에서 역사를 이끌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민중신학 이론을 수렴하여 작가의 작품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권정생은 1969년 『기독교 교육』지에서 실시한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에 「강아지 똥」이 당선되고, 1971년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와, 1973년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각각 신춘문예에 입선·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하였다. 최근(2007년 5월 17일)에 별세하기까지 그는 130여편의 중·단편 동화를 발표하였고, 장편 동화 9편, 장편 소설 2편, 시집 1권, 산문집 2권을 내면서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주목받는 작가였다.

권정생에 대한 논의는 인간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의 비문학적 접근과, 그의 작품과 관련한 문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학적 접근을 한 학위논문<sup>1)</sup>과 소년소설을 연구한 학위 논문으로서 권정생의 동화 일부를 언급하고 있으며<sup>2)</sup> 아동 문학가들의 작가·작품론이 있다.<sup>3)</sup> 비문학적 접근으로

- 1) 백영현, 「권정생 동화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오길주, 「권정생 동화 연구」, 카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노연경,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계삼, 「권정생 문학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옥금, 「권정생 문학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황경숙, 「권정생 동화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성갑영, 「권정생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미옥, 「권정생 동화의 리얼리즘 구현 양상과 문학교육적 의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수경,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설아, 「권정생 문학 연구(중단편 동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지훈, 「권정생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희구, 「권정생 소년 소설 연구:전생수용작품 「몽실 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주현, 「권정생의 리얼리즘 동화와 판타지 동화 연구」, 대전대 대학원, 2006.
- 2) 권경희, 「한국 현대 리얼리즘 동화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9.  
김경애, 「한국 소년 소설의 일 연구」, 단국대 석사, 1996.  
김경흠, 「장애 모티브 소설 연구」, 단국대 석사, 1998.  
김학선, 「한국 창작동화 아동소설 연구」, 단국대 석사, 1985.  
이상재, 「한국 창작동화 아동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 1991.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 박사, 1998.
- 3) 김용락, 「영혼의 울림과 내면의 불빛」, 『지역, 현실, 인간 그리고 문학』, 문예미학사, 1999.  
신현재, 「권정생의 한과 낙원지향의식」,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작품론』, (사계 이재철 교수 정년 기념논총), 집 문당, 1997.  
이오덕, 「학대받는 생애에 대한 사랑」, 『강아지 똥』, 세종문화사, 1974.  
\_\_\_\_\_, 「소복한 삶과 따스한 인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_\_\_\_\_, 「인간과 생쥐의 대화로 엮은 철학」, 『삶, 문학, 교육』, 종로서적, 1986.  
이재복, 「시궁창도 귀한 영혼이 숨쉬는 삶의 한 귀퉁이」, 『우리동화 바로 읽기』, 한길사, 1995.  
최지훈, 「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한국현대 아동 문학론』, 아동문예, 1991.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이력과 작품세계를 다루거나 인간적인 교분으로써 그의 삶과 문학을 증언하는 글로써 살펴 볼 수 있다.

백영현<sup>4)</sup>은 권정생의 초기 작품들을 등장인물, 배경, 구성, 표현 방식과 문장, 주제의 특성을 밝히고, 아동들의 세계와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동화에 수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권정생의 문학적 의의와 업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권정생의 초기 작품에 한정된 연구라는 점과 통계 중심의 양적 연구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권정생의 전체적인 작품에서 내적 구조에 대한 접근으로 다루어진 학위논문으로, 오길주<sup>5)</sup>는 ‘분단 상황의 동화적 수용’과 ‘기독교 의식의 동화적 구현’으로 연구하였다. 이계삼<sup>6)</sup>은 종교적 성격과 인간학적 성격으로 나누어 작품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황경숙<sup>7)</sup>은 아동문학사적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옥금<sup>8)</sup>과 노연경<sup>9)</sup>은 제한적 작품으로 문학에 나타난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동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편동화의 작품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비문학적 접근으로 이오덕과 최지훈의 평론이 있지만 작품 연구의 한다면만 살펴보게 한다. 그러므로 권정생의 전체적 작품 연구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권정생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논의 되어진 학위논문은 국문학적 접근이 조금은 미비한 상태이다. 대부분 아동 교육 전공자들로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아동문학사적으로 권정생 문학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정생 작품이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논의했던 논문은 몇 편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권정생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점의 연구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출되는 한계를 감안하여 그의 작가의식 및 문학관을 기초로 하여, 그의 동화가 기독교의 민중신학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4) 백영현, 전계논문.

5) 오길주, 전계논문.

6) 이계삼, 전계논문.

7) 황경숙, 전계논문.

8) 이옥금, 전계논문.

9) 노연경, 전계논문.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권정생의 동화집 「깜둥바가지 아줌마」, 「짱구네 고추밭 소동」, 「사과나무 밭 달님」, 「하느님의 눈물」과 장편동화 「몽실 언니」, 「점득이네」,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슬픈 나막신」과 작가의 사상이 담긴 산문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권정생 동화가 갖는 기독교의 특색과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민중신학 사상으로 살펴보려 한다.

II장에서는 먼저 민중신학의 주요개념으로 ‘민중’과 ‘민중신학’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작가만의 독특한 기독교적 경험세계가 그의 작품세계는 물론 이려니와 민중신학 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그에 대한 전기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하여 그의 수상집과 잡지, 기타 매체 및 인터뷰, 대담과 같은 자료들도 살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동화에 나타난 민중신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1. 작가는 상황적 동화에 나타난 현실적 이해 속에 이념적 갈등을 부정하고 있으며, 소외된 민중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작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할 민중의 삶을 고찰 할 것이다.

2. 우의적 동화의 환상적 세계에서는 민중의 폭발된 혁명이 역사적 사건에서 표출 되어진 것을 살펴 볼 것이다. 여기서는 민중을 ‘패배자’의 모습보다는 ‘강인한 생애 대한 의지’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역동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작가는 일반적인 동화와 달리 현실의 비극적 측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그가 형상화하고 있는 현실 반영 방식에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관념이 스며들어 있다. 그 속에 투여된 역사적 인식과 민중신학 사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첫째로 하찮은 「똥」과 「흙」이 우주만물의 근원적 시작이 된다는 작가의 사상을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작가는 생명원천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똥」을 황금보석보다 귀하게 여긴다. 자연 섭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암흑기의 시대를 지내왔던 작가가 비극의 역사 속에 작품의 주인공들까지도 비극적으로 등장 시킨다. 작품속의 인물들은 정치·경제·사회·환경의 모든 열악한 상황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담담히 극복해 가는

삶의 구조를 보여 준다. 비극적 동화의 수용은 권정생 작가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문학의 한 장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비극성 속에는 어두운 현실의 전면을 다루면서도 결코 어둡지만은 않은 전망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일반적인 동화와는 달리 현실의 비극적 측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자기희생적이요, 운명에 순응하므로 고난을 극복하는 인물을 통해 민중신학적 접근으로 ‘구원’의 방식과 ‘민중’의 모습을 고찰 할 것이다 .

셋째로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통한 작가의 의식이 그의 작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민족의 비극적 역사현실을 아동 문학에 수용하여, 절망적인 현실에 극복 의지를 보여주며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문학적 성으로 동화의 역사성까지도 높여주고 있음을 고찰 할 것이다.

권정생 작품의 종교성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이다. 기독교의 민중신학 사상이 동화적 구현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해 볼 것이다.

## II. 권정생과 민중신학

이 장에서는 1970년대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개념으로서 ‘민중’과 ‘민중신학사상’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권정생 자신의 민중신학적 관념들을 그의 에세이나 대담 등을 통하여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민중신학의 주요 개념

민중신학은 1970년대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한국 역사적 시기에 태동 하였다. 한국사회는 60년대 중반부터 지극히 극심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기에 수반된 도시화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불균형의 부조리, 그리고 극심한 정치적 경직화까지 수반되어 온 국민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 임금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사회적 문제들을 민중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 하였다.

민중신학에서 민중의 개념을 안병무는 마가복음서에서 사용된 ‘오클로스’에서 ‘민중’을 찾는다. 그는 ‘오클로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민중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그를 찾아 모이는 “무조건적 추종자”로

서, 당시의 체제에서 “정죄 받고 소외당한 계층”, “세리와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오클로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구분되어진다. 셋째, ‘오클로스’는 예수가 원수로 간주하여 대적하며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대조를 이룬다. 넷째, 예수는 ‘오클로스’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 이처럼 안병무는 마가복음 ‘오클로스’의 개념을 통해 민중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종교의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소외된 이들로 확대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10)</sup> 신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민중론을 연구하여 정립된 개념을 세우고자 하는 민중신학의 1세대가 있었다. 그들은 안병무, 서남동, 김용복, 현영학 등으로 이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호서대학교 임태수는 다음과 같이 민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적 실체이다. 둘째로, 민중은 정치적 피억압자, 경제적 피수탈자, 사회적 소외자 등 사회의 하류층이다. 셋째로, 민중은 자각된 대중(민중)뿐만 아니라 우매한 대중(민중)도 포함한다. 넷째로 민중은 역동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에 따라서는 비민중이면서 동시에 민중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다섯째,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신다. 마지막으로, 민중이 주체가 된 나라는 전 국민이 민중화된 나라, 즉 정의·평등·자유·평화의 나라이다.<sup>11)</sup>

따라서 민중이란 소극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역사의 근원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반대되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 저항하고 극복하는 총체적인 집단과 그 집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은 그런 현실을 극복해 가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sup>12)</sup> 그러므로 역사와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주체적 세력이 민중이라는 것이다. 민중이 역사를 담당할 주체세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갈 메시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민중이라는 것이다.

안병무는 구약의 출애굽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하면서 ‘사건의 신학’으로 민중신학을 정립하고 있다. 그는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직접 이끌면서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개입과 백성들의 억압이 풀리는 과정을 통

10) 안병무, 「민중, 민중, 교회」,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 신학 연구소, 1982, 19쪽.

11) 임태수, 『죽계 서남동 목사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한국 신학 연구소, 1983, 330쪽.

12) 박계순, 『열린 사회를 위한 민중신학』, 한울, 1995, 48쪽.

하여 구약의 성서에서 민중신학을 찾고 있다. 신약의 성서에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도래하고 있는 새 세계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찾으며, ‘오를로스’를 들어서 민중을 정의하고 있다. 그는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들어서 ‘민중사건’가운데 하나로 보고, 종교적 의식에만 머물러 하지 않고, 오늘의 민중현장에 접목하여 수평적 차원으로 성서에 나타난 사건을 바라본 것이다. 민중은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메시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서남동은 하나님이 억압당하는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 정치적 사건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본보기로 제시한 사건이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 아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사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석 할 수 없다면, 하나의 자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서의 전거로 구원 활동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충격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서남동은 성서 이외의 다른 이야기 (민담)들도 얼마든지 ‘민중 사건의 전거’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성서적 계시를 역사적인 것으로서 하부 구조(정치 사회적)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보고, 성령은 문화적, 사회적, 억압에서 기인한 인간의 ‘한’을 치유하는 우주 생명적 중심원리이며<sup>13)</sup> 그때그때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한의 사체’로 부르는 하나님의 활동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신학은 사회 경제사적 억압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 민중의 한풀이의 문화신학이며, 민중의 자기 초월적 능력을 계발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현영학은 한풀이의 해방적 기능으로 한국 민중의 탈출을 역사적 생성 배경 속에서 탈출 신학으로 연구하였다.

서남동은 ‘한’에는 두 가지로서 ‘약자의 패배감’과 ‘강인한 생에 대한 의지’로 보았다. 그는 패배감보다는 강인한 생에 대한 의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여기에서 반란이나 혁명을 위한 과격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이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학생의거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폭발된 혁명이 민중을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에 시달린 약소민족으로서 한 그리고 지배자의 폭압 아래

13) 서남동, 「한의 형성화와 그 신학적 성찰」, 『한의 이야기』, 한길사, 1983, 307쪽.

신음하는 민중적 존재의 모습도 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민중의 정치적 억눌림, 경제적 빼앗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신학의 주제로 삼는다. 민중신학은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하나님’에 관심을 갖는다. 기독교 신학은 ‘사람의 구원’이 중심이며, 민중신학은 ‘사람의 구원과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해방자 그리스도로 바라본다면 민중신학의 중심에 서는 이론이 성립된다. 이러한 이론을 한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신학사상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민중신학은 ‘한국’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민중에게 필요한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민중해방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민중이 구원받는 길을 찾아 나서는 ‘실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서구적 신학으로서 구원성을 지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사람의 구원과 해방을 지향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 2. 권정생과 민중신학의 비교

먼저 권정생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전기적 삶을 통하여서 작품세계와 그의 민중신학적인 기독교 의식의 연속성을 고찰 할 것이다.

권정생은 1937년 9월 일본 동경의 빈민가였던 혼마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소부였으며 어머니는 누비옷 샅바느질을 하는 곤궁한 가정 이었다. 1946년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가족들은 가난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였다. 한국전쟁은 가족들을 뿔뿔이 헤어지게 만들었다. 1953년 안동에서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소학교가 학력의 전부였던 그는 나무 장수,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점원 노릇을 전전하였으며, 19세 되던 때부터 결핵을 앓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죽기 전 동생을 위해 1년 정도 집을 나가 있어 줄 것을 권하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집을 나간 권정생은 3개월간 경북 일대를 떠돌며 걸인 생활을 한다. 대구, 김천, 상주, 예천 등지를 다니면서 3개월간 구걸생활을 다녔다. 그는 이러한 시절을 통하여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거지의 생활로 따뜻한 들판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으며, 그 때에 예수를 만났었고 성경을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것이다. 작가의 처참한 생애는 작품 창작활동에서도 여과 없이 더 초라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세계를 지배하는 동화적 특성상 좀 더 밝고 행복하게 그릴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작가의 성장 배경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민중의 삶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는 지극히 민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민중들의 역사를 고민하며, 민중들 스스로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작품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민중 신학자들처럼 한국 토양에 맞고, 우리민족의 얼과 혼을 존중할 수 있는 토착화적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거지와 친구가 되자면 거지가 되어야 하고, 과부 사정은 동무 과부가 가장 잘 안다. 훌륭한 사람이란 바로 상대와 제일 가깝게 사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상대는 바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이다.

그 고통 하는 이웃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앞서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면 기독교는 빨리 망해 없어져야 한다. 아니다. 벌써 기독교는 망해 버렸고 죽어 버렸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허수아비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거대하게 지어 놓고 모이고 있는 교회는 망한 교회, 죽은 교회이다.<sup>14)</sup>

권정생은 훌륭한 사람이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을 가깝게 사귄 수 있어야 하며, 소외된 그들에게 군림하는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민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그 형성배경을 한국사 70, 80년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기존체제의 교회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된 성서의 이해를 우리 토양의 잣대로 새롭게 해석함을 통해 이 땅의 민중에게 구체적 복음을 제시하고자 한 신학조류이다. 따라서 민중신학은 한국 신학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양상 된 기독교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민중신학이 태동하던 시기에 권정생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 정착한 서구적 신학의 토착화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우연에 일치하게도 권정생의 기독교사상과 작품성에서 민중신학 사상을 보게 한다.

서구인들의 물질문명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꾸고 살리는 바른 눈으로 성서를 다시 봐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인간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뤄내는 것이지 갑

---

14) 권정생, 「십자가 사건과 부활:인간의 삶과 부활의 힘」,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7.4, 74쪽.

자기 또 다른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이 되는 동식물들이 서로 아끼며 공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sup>15)</sup>

권정생은 서구인들이 물질문명과 함께 들여온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자고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인간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뤄내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권정생은 민중신학자들이 서구적인 신학으로 한국 땅에 토착하여 균립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토양에서 생성된 신학을 만들었던 그 시기와 같은 때에 고민을 하고 있다. 민중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70년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신학 사상으로 역사적 갈등을 해결 할 구원자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민중신학 1세대들은 그들이 시대적 고민을 서남동이 말하였던 ‘한의 사제’로서 담당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민중신학에서 성서의 해석을 꺾대기적인 것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민중을 찾자고 하는 문제제기와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라” 하였던 것처럼 그는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이웃이 되는 동식물을 사랑할 때에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종교개혁자 루터에서부터 시작된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구원을 얻는다”는 개신교회의 신학 핵심 사상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사상은 개신교회에 행함을 배제하고 공허한 믿음만을 남겨 두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주인으로서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코 메시아이신 예수와 동등한 차원의 메시아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메시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권정생과 민중신학은 하느님과 인간이 함

---

15) 권정생, 「효선리 농부의 참된 농촌 이야기」,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 1996, 181-182쪽.



게 노력하여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보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로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기독교가 참다운 예수님을 전해주었나 하는 문제부터 돌이켜 봐야 한다. 앞서 말한 이곳 산골동네 기독교 마을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이면 어느 집이나 어느 마을이나 우리들의 전통문화가 파괴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마을 밖 서낭당의 돌무더기도 없어지고, 정월 대보름날 동신제에도 기독교인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성주단지나 용단지도 깨뜨리고 부숴버린다. 조상들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논밭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도 안한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한 것이다 .....

그러나 수 천 년, 수 만 년 이어져오고, 그 속에서 우리의 얼을 가꾸어온 전통문화를 깡그리 우상이나 미신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진정한 기독교라면 겨레의 문화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은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누렁기도 하지 않은가?<sup>16)</sup>

그는 한국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적 당위성을 가지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민중신학이 지극히 한국적인 토양에서 이루어 가려는 신학사상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권정생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깡그리 배척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민중신학을 태동하게 하였던 1세대들은 한국역사 민중 전통과 신구약성서의 민중에서 민중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작가의 고민과 반대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소극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억압 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이며 적극적으로는 역사를 담당할 주체 세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주역으로 민중을 보고자 한다. 그들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를 이룩할 ‘민중’으로서 ‘메시아’역할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인들이 갇혀 있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도 계시고, 기계소리가 요란한 공장 일터에도 계시고, 창녀들이 몸을 파는 어두운 뒷골목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 중

16)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6, 18쪽.

략 -

갈보리산 언덕에서 죽은 예수님은 진실로 정치와 대결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sup>17)</sup>

작가는 하느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계신다고 한다. 그는 자연의 피조물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에게 사회적으로 홀대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곳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민중신학에서 하느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과 함께 하고 계시며, 그들의 역사를 담당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상과 같이 하고 있다. 민중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심은 정치의 대결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처럼 작가도 예수를 정치적 대결자로서 그들과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것이다. 작가는 세상의 정치가 부정했기에 대결자로 나서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 「강아지 똥」으로 문단에 등장하게 된 그는 70 - 80년대에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 민중신학이 태동하여 발전하게 된 시기와도 맞물리게 된다. 결코 시기적 배경 뿐 만이 아니라 그의 대답이나 토론 등이 항상 민중신학적 맥과 함께 하고 있다. 작가는 많은 작품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한 민중의 삶은 풀뿌리처럼 깃뚫히고 천대받으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 뿌리를 보존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민중에게 하느님의 섭리가 필요하였으며, 하느님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상공간을 추구하고 있는 우의적 작품에서도 인간의 삶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연의 질서와 섭리가 하느님의 질서요 섭리라는 것이다.

작가는 민중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민중의 시선으로 관찰토록 하고 있다. 작가의 인생은 참으로 '민중의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생을 육적으로는 아팠으며, 정신적으로는 우리들의 시대를 고민하였으며, 영혼으로는 하느님 세계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2007년 5월 17일에 그는 별세하였다. 그는 한국근대사의 험난한 역사를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그의 삶은 민중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그 삶을 작품에

---

17) 권정생,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종로서적, 1986, 168-169쪽.

고스란히 담아내었던 것이다. 작품 또한 항상 민중의 시선으로 썼으며, 민중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5월18일 한겨레신문에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 달라고요. 제 예금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 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2007년 3월 31일 오후 6시 10분)  
-유언장 가운데에서 -

권정생은 죽음을 앞둔 유언장에서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의 작품 곳곳에서 하느님 사랑을 심어 놓았던 그는 위의 글에서도 하느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에 순응하는 민중에 삶을 살았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권정생의 전기적 삶을 통하여서 그의 기독교적 신앙이 우연히도 민중신학사상과 맞물려 있음을 보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그의 사상과 민중신학사상을 비교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견해로 민중신학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와 민중을 주체와 객체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민중을 실존적으로, 집단적으로, 통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민중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의 실체라는 점과 민족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집단이고 역사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권정생은 우리민족의 비극적인 역사 안에서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게 하는 시선으로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다. 민중신학에서 ‘민중’과 ‘역사’를 떼어낼 수 없었듯이, 권정생의 작품 또한 인물의 ‘민중’과 사건의 ‘역사성’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민중신학의 전거로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들고 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해방사건이다. 당시 대제국인 이집트의 학정에 시달리던 최하층의 히브리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키고, 탈출한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적인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실제 역사적 차원은 배제하고 종교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중신학의 성서적 전거가 실제적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출애굽 사건은 역사를 이끄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역사의 주체는 최하층인 히브리사람들 이었다.

한국의 모든 교회는 이런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 서구인들이 마음대로 변질시켜 놓은 예수의 참된 복음을 깨닫는다면, 창조 이래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느님의 숨결을 금방 찾아낼 것이다. 나는 지금 20여 년 전에 내가 구상하고 꿈꿨던 교회는 벌써 잊었다. 교회는 새삼스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바로 하느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나는 몇몇하게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서로 섬기며 살고 싶을 뿐이다.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서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며 그것을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다. 이 땅위의 진짜 우상과 마귀는 제국주의와 전쟁과 핵무기와 분단과 독재와 폭력이다.<sup>19)</sup>

작가는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제국주의’, ‘전쟁’, ‘핵무기’, ‘분단’, ‘독재와 폭력’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피 흘려 희생하였던 것은 이러한 우상과 마귀적인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계와 온 우주가 하느님의 교회라는 것이다. 그 속에 모든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서로 섬기며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으며, 그 민중을 구원코자 계획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사상에서 권정생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작가는 역사성 위에서 작품화된 인물들을 구성할 때에 하나같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민중들로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품 안에서 그들 스스로 구원 받도록 하고 있다. 민중신학에서 민중이 역사를 조명하면서도 구원 받아야 될 자들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제 36년과 6·25를 겪은 우리 겨레는 가장 큰 소원이 전쟁 없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이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하

---

18)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51.

19) 권정생, 앞의 책, 21쪽.

며 고달프게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니 되도록 닥치는 불행을 줄여가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성인의 삶의 방식이 있다.

들판에 자라는 보리는 봄보리와 가을보리가 있는데 가을보리를 봄에 심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을에 심어 혹독한 눈보라를 견디며 자라야 이듬해 튼튼한 보리로 자라나서 알찬 열매를 맺는 것이 가을보리의 타고난 운명이다. 가을보리에겐 고통을 제외한 온실 같은 평화는 오히려 절망이며 죽음인 것이다.<sup>20)</sup>

권정생은 가을보리의 타고난 운명을 들어서, 우리의 역사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그는 작품의 구조 또한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역사적인 바탕위에 그려진 작품들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구원의 도식보다는 스스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토록 하는 것이다. 그는 전쟁의 상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통일(남북이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될 때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본다.

민중신학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역사학적 그리고 종교사적인 구조 속에서 그 개념을 바라 볼 때에 그 관점을 좀더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정치·사회 속에서 군사적 독재가 어떻게 보여 지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나라 없는 백성, 길 잃은 양들, 오늘의 우리 현실이 2천년 전 예수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서 평생을 눈물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이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는 헤어진 부모와 자식들의 가슴에 겨누는 총알 값이 된다. 국방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젊은이를 군대로 몰아넣어 형과 아우끼리 피를 흘리게 하는 이 땅의 슬픈 현실에 교회는 무엇을 했던가?<sup>21)</sup>

민중신학은 사회과학계와 역사학계가 말하는 한국 역사의 민중전통과 신구약성서의 민중전통을 합류하여 민중론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민중이란 소극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억압 받고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역사의 근원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반대되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 저항하고 극복하는 총체적인 집단과 그 집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은 그런 현실을

---

20) 권정생, 앞의 책, 53-54쪽.

21) 권정생, 앞의 책, 43쪽.

극복해 가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sup>22)</sup>

권정생은 ‘국방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젊은이를 군대로 몰아넣어’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슬픈 현실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작가가 슬퍼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민중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저항하고 극복하는 총체적 집단인 민중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바로 자연의 섭리가 된다. 하느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래 했다. 그러니 하느님은 곧 자연인 것이다.<sup>23)</sup> 하느님이 곧 자연이라는 사상은 작품을 형성하는 배경에서도 크게 자리를 잡는다. 작가는 온 세계와 온 우주가 바로 하느님의 교회로서, 그 속에서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서로 섬기며 살고 싶어 한다. 권정생은 이러한 사상으로 생물체는 물론 작은 무생물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 우의적 환상으로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며, 피조물들의 고통을 고민하고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섬기며 살라는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의 몸으로 섬기러 왔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섬기다가 결국 죽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기독교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 중략 -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굶주림과 억압과 사치와 낭비와 온갖 폭력과 범죄에 대하여 기독교는 얼마나 땃땃한가? - 중략 -

자연과의 경쟁은 더욱 잔인하다. 1년에 5만종이나 되는 목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인간이 과연 위대하고 축복받은 인간인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느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다는데, 과연 교회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있는 것일까?<sup>24)</sup>

요즈음 지구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새로운 사실이 아

---

22) 박재순, 『열린 사회를 위한 민중신학』, 한울, 1995, 48쪽.

23) 권정생, 앞의 책, 19쪽.

24) 권정생, 앞의 책, 117-118쪽.

니다. 공기, 물, 강, 바다, 땅 등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고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바울이 말한 ‘피조물들의 탄식’(롬8:18-22)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신학은 억눌리고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해방에만 집착해왔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신학은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해방과 보존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필자는 이렇게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피조물도 ‘민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들도 착취와 억눌림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안다. 이 피조물들의 해방이 시급하다.<sup>25)</sup>

권정생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보시고 뭐라 하실까?’라고 묻는다. 그리고 기독교는 자연 앞에서 과연 떳떳한가를 묻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고민과 맞물려 민중신학도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피조물도 ‘민중’이라고 간주하면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의 해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중신학은 2000년대를 향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구원을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 Ⅲ.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민중신학적 특성

이 장에서는 권정생의 동화를 크게 사실주의적 동화와 우의적 동화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 논의될 사실주의적 동화는 주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씌어진 작품들을 말한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피치 못할 역사적 상황에 의해 빚어진 약소민족의 ‘한’과 지배자의 억눌림에 신음하는 ‘민중’적 존재를 비극적인 모습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우의적 동화에 구현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구현된 ‘민중’의 모습과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지향하는 ‘민중신학’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5) 임태수, 『제 2종교개혁을 지향하는 민중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58-59쪽.

## 1. 사실주의 동화와 역사적 현실 인식

작가 권정생은 “거짓말을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들려주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저절로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하지만 참말을 전해줘야 합니다.”<sup>26)</sup>라고 하는 말로써 자신의 역사관을 피력한 적이 있다. 어린이의 시각에서 역사에 접근하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리겠다는 것이 작가의 의지다. 사실주의 계열의 동화들 속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적 존엄성과 자연을 존중하는 작품을 쓰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현실의 비극적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물들을 ‘민중’적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민중들의 모습은 역동성을 지니기 보다는 그야말로 나약하고 소외된 민중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다음으로 산업화 사회로 치달는 길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폐해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난 농촌의 가난을 소재로 그려진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 1) 민족 분단 상황의 비극적 조명

권정생이 추구하는 작품의 역사성은 그의 어린 시절, 일제 식민지치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수난을 자신이 살았던 유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성찰한다.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아버지는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겨우겨우 가족을 부양했는데 권정생은 아버지가 쓰레기더미에서 주워다 주었던 동화와 소설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절로 추억하기도 하였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작품 「공 아저씨」에서 그려진다. 공 아저씨는 작가가 어린 날을 보냈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공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시골 사람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품팔이를 하고 있었다. 경상도의 시골 농부 출신인 그는 1년이면 한 밀천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식구들과 약속한 바 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 남은 아내와 삼남매 아이들은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애초의 결심과는 달리 조선을 떠나온 지 벌써 두 해 반이 지나도록 그의 일본에서의 고난은 계속된다.

---

26) 권정생, 『쟁구네 고추밭 소동』의 작가의 말에서.



공 아저씨는 도쿄의 차가운 거리에서 그만 일어서 죽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두고 온 고향 식구들에게 죄스런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죽는다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한 번 두 주먹을 그러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sup>27)</sup>

- 중략 -

말없이 공 아저씨는 걸었습니다. 달을 쳐다보면서 걸었습니다. 불현듯 고향 생각이 가슴을 비집고 걸잡을 수 없이 밀어닥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 아이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푸른 청솔바람이 고향 냄새를 일으키며 불어오는 듯 고향 마을이, 동산이 보였습니다.<sup>28)</sup>

작품 「공 아저씨」는 일제시대에 일본당국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게 되었던 처참한 민중의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리민족을 대표하듯 착하면서도 소외된 민중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역경과 고난을 이길 힘이 고향과 가족임을 웅변한다. 권정생이 보기에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었던 민중들이 모여져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이다. 이들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민중 스스로 일어서기를 작가는 바라고 있다. 작가는 공 아저씨가 유혹을 극복해가는 과정만 보여주지 그의 행복한 최후까지는 구현해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지극히 인간적인 결말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작가는 일제강점 하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정을 상기시킨다. 공 아저씨는 두 해가 지났음에도 차가운 겨울 날 거리에서 일어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현실적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작가는 ‘차가운 겨울의 거리’를 들어서 그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11월 2일에는 오키나와에서 한국인 위령제가 열렸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과 일본군이 가장 치열한 지상전을 벌인 격전지고, 1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은 곳이다.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원형으로 돌을 쌓아 올린 봉분형의 탑이

---

27) 권정생, 「공 아저씨」, 『사과나무밭 달님』, 1978, 52쪽.

28) 위의 책, 65쪽.

바로 오키나와에 세워졌다. 1975년 8월에 우리나라 각 시도에서 가져온 돌과 흙으로 탑이 위령탑의 재료였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는 오늘도 그 때에 입었던 피해자에 대해서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얼마 전 일본 사이타마현 곤쥬인에 안치된 한국인의 유골이 최소 20만구에서 최대 60만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하였다.<sup>29)</sup>

권정생은 이른 시기인 78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제강점 하의 강제 동원을 알리고자 했던 선지자였다. 이 사실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한이 죽음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을 깡그리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공 아저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현혹 되어 버렸다. 순수한 시골 아저씨의 모습이다. 한국인을 강제 동원 하였던 일본인들은 배고픔으로 비참한 현실을 이어가는 흰 옷 입은 백성이요, 순결하였던 민중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다는 미끼를 내세워 잡아갔던 것이다. 청년들은 ‘충성’을 내세우며 강제로 징용하고, 대한의 딸들은 위안부로 끌고 갔다. 작가는 공 아저씨의 착한 심성으로 한국인들의 어질고 순박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이 ‘돈’을 들고 딸과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아저씨는 조국의 고향과 가족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소외된 민중인 아저씨에게 조선의 고향과 그리운 가족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사과나무밭 달님」에서는 순박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 필준이와 실성한 어머니 안강택이 강가 과수원지기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사과나무 밭 외딴집에서 쓸쓸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필준이는 자신의 삶을 더 없이 행복한 것으로 여긴다. 마흔 살이 다 되도록 아직 어린애만 같은 자기는 어머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다. 어머니 안강택은 곧잘 아들과 소꿉놀이를 한다.

“필준아, 우리 동두깨비(소꿉놀이) 살까?”

안강택은 꼭 어린애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필준이는 웃으며 어머니와 소꿉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 중략 -

“여보셔요, 필준이 아버지.”

“예, 어머니.”

---

29) Naver.

“예, 어머니가 뭐야. ‘여보, 왜 불렀소?’ 해야지.”

“여보, 왜 불렀소?”

“당신, 오늘 읍내장 가거든 필준이 꽃신 한 켤레 꼭 사와요. 애가 얼마 안 있음 자족자족 걸을 테니 말요.”

“ . . . . . ”<sup>30)</sup>

어머니인 안강택은 필준의 첫돌을 며칠 앞두고 어디론가 가버린 채 소식이 끊어진 남편을 당시 그대로 기억하며 살아간다. 안강택은 저녁을 먹다 말고 동산에 흰히 솟아오르는 달을 보면서 “필준아, 저것 봐 달님이 뜨는구나! 얼마나 잘생겼니?” “저건 바로 너희 아버지 얼굴이야. 집을 나간 뒤 한번도 돌아오지 않는 미운 아버지지만 그래도 저건 너희 아버지 얼굴이야……”라고 말하곤 한다. 안강택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시대에 남편이 집을 나갔던 그 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은 안강택과 필준이가 달을 보면서 달빛처럼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함께 마무리 된다. 이 작품에서 ‘달’은 마법적 힘의 상징이며, 소망을 비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숭고한 불변적 존재 달이, 그들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상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 위로가 두 모자에게는 잠시나마 카타르시스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달빛처럼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두 모자의 기다림 속에는 오래 전 집을 떠난 남편에 대한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절박하고 안타까운 모자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면서도 그 속에 소꿉놀이를 장치해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작품에 순수한 서정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짙은 패이소스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들 필준이의 나이는 41세이고, 어머니인 안강택은 40년 동안을 실성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개인사적으로 잃어버린 안강택의 정신력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상징한다. 안강택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일종의 노이로제 증상을 앓고 있다. 어느 외상적 사건에 ‘고착’되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 프로이트가 반복강박이라고 명명한 증상의 전형적인 예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외상에의 고착’으로 인해 어린 시절이나, 유아시절, 혹은 특정한 외상적 순간에 머무르는 환자들이 있다.<sup>31)</sup> 안강택은 외상에의 고착

30) 권정생,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1978, 26쪽.

31) 프로이트, 서석연 역,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입문』, 범우사, 1990, 282-283쪽(요점정리).

증상으로 정신상태가 필준이 태어나던 시절, 그리고 남편을 잃었던 시기에 멈춰 있다.

독자들은 작품 「사과나무 발 달님」을 통하여 일제강점 하에 우리민족이 살아야 했던 삶의 처절함에 공감하게 된다. 작가는 안강택의 ‘고착’ 증상을 통하여 ‘민중’의 애달픈 삶을 독자들의 감정으로까지 확대한다.

작가는 구원되지 않는 삶의 애환을 치유키 위해서 어떠한 통로나 돌파구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연의 힘에서 위로를 발견한다. 「사과나무발 달님」에서 달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였던 작가는 「할매하고 손잡고」 같은 작품에서도 달을 등장시키고 있다. 작품 머리에서 할매는 달을 쳐다보며 밤마다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고통의 역사를 인고하면서 걸어 나아간다. 할매는 밤마다 손자 용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북녘 땅을 건너가는 꿈을 꾸고 실제로 매일 밤 용이의 손을 잡고 휴전선을 향해 나아간다. 할매는 민족적 이념과 체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것이다.

할매는 달을 쳐다봅니다. -중략-

“용이 할배, 나, 용이하고 영감 찾아가거든 두 팔 벌려 얼싸안아 주시구려.”

할매는 달을 쳐다봅니다. -중략-

“달아 달아, 왜 이다지도 살아가는 게 굵이굵이 힘들지?”

달이 내려다보고 대답합니다.

“사람이란 여지껏 그랬지. 제 손으로 눈을 찌르고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빠져 죽는 게 아니냐? 언제 철이 들고 정신 차리게 될는지. 쫓쫓.....”

달도 웃고 할매도 쓸쓸히 웃었습니다. 웃는 할매 두 뺨으로 두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sup>32)</sup>

작가는 달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제시할 뿐, 작품 어느 곳에서도 문제의 해결 지점을 직설적으로 설파하지 않는다. 단지 달을 등장시켜 “사람이란 여지껏, 제 손으로 눈을 찌르고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빠져 죽는 게 아니냐? 언제 철이 들고 정신 차리게 될는지.”라 말할 뿐이다.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를 그 안에 사는 사람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것이다.

할매의 삶은 분단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민족의 한을 상징하고 있다. 작

32) 권정생, 「할매하고 손잡고」,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46-47쪽.

가는 그 한을 치유할 방식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대신 달이라는 매개체를 등장시켜 사람 스스로, 한을 안고 살아가는 민중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게 만든다. 민중의 중심에 서있는 할매는 일제강점 하에 아버지를 징용으로 잃었으며, 어머니는 인민군 망이를 사위로 삼았으며,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토벌대의 카빈총에 잃은 적이 있다. 남북을 가르고 있는 가시철망에 남편인 망이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 목이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다가 사형수로 인생을 끝맺는다. 손자인 용이의 손을 잡고 달빛 드는 밤마다 찾아가는 그 곳에서 언제나 가시철망이 사라질 것인가? 그 날에 할매는 남편 망이를 만나서 행복해 질까? 우리사회의 현실적인 과제로 놓여있는 통일은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그 답이 되는 작품이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이다.

작가는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지상에 내려오게 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인 아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설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언제까지 지상에 머물 것인가를 계획한다. 그들의 결론은 통일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참고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작가는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단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싶다. 하느님과 예수가 지상에 머물러야 할까를 고민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온통 한으로 점철된 할매의 삶이야말로 이 땅 민중들의 삶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삶이다. 그 할매는 우리의 할머니, 바로 나의 할머니인 것이다. 나의 할머니의 한은 곧 나의 한이다. 결국 우리 모두의 한을 풀 수 있는 것은 남북을 가르고 있는 가시철망이 풀리는 것이다. 가시철망이 풀릴 때 민중의 한은 스스로 풀려질 것이다. 할매는 아버지가 징용으로 떠나고, 어머니가 죽고,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죽었지만 가시철망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마음 하나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작품 「짜리골댁 할머니」의 주인공은 난쟁이 키에 탱자코로, 동네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면서도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한다. 그러던 중 인민군과 국군이 마을을 번갈아 가면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진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날 때 할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을에 남게 된다.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할 때에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지서에 붙들려가 고문 끝에 정신을 잃게 된다. 그리고 마음 사람들이 무서워 공동묘지로 숨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는다. 마을 사람들의 이념적인 갈등이 그저 거지일 뿐인 할머니마저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은 거지 생활을 하였던 할머니에게도 참혹하였다. 자신의 삶 자체도 불행하였는데, 그에 더해서 죽음으

로 끝을 맺게 하는 것이다. 난쟁이 키에 탕자코였던 할머니는 불후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참혹한 시대를 다시 한 번 증언한다.

작품 「패랭이 꽃」에 등장하는 곱사등이 분이 아버지도 빨갱이라는 죄목이 무서워 북으로 도망을 간다. 남겨진 엄마와 분이는 어디엔가 살아계실 아버지를 그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디선가 떠돌이 문세 아저씨가 나타나 꼭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한 집에서 지내게 된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면 전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행복은 일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작가는 작품의 한 구절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또 괴로워하는 게 본디부터 가진 임무”라고 말한다. 문세아저씨는 어느 날 분이에게 내일부터 군인아저씨가 되어서 월남에 갈 거라고 말한다. 분이는 월남에도 나쁜 사람이 많아서 아저씨가 그곳으로 가는 줄 알고 묻는다.

“그곳에서도 나쁜 아버지와 헤어진 애들이 나처럼 곱사가 됐을지도 몰라. 아저씨 그 나쁜 아버지를 쏘아 죽일 테지. 곱사 애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밋지 않을 거야. 애들은 아버지가 죽는 것이 싫을 거야.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 해도 못 견디게 보고 싶을 거야.....”<sup>33)</sup>

분이에게는 문세 아저씨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일처럼 보여 진다. 그러기에 아무리 나쁜 아버지여도 애들은 아버지가 죽는 것이 싫을 거라고 말한다.

이처럼 작품 「패랭이 꽃」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잃은 분이의 기다림이 있다. 그런데 작가는 분이를 불구자로 묘사한다. 분단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아버지를 영원히 만날 수 없으리라는 암시처럼 그녀를 곱사등이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의 전쟁이 중첩된다. 월남으로 떠나는 문세 아저씨를 통하여,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행복해 지지 못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곱사등이인 분이를 주인공이면서도 소외된 인물로 그림으로써 민중의 처참함을 중첩시키고 있다. 분이의 아버지는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빨갱이라는 악명을 얻은 채 이 땅의 삶으로부터 유배되었다. ‘빨갱이’ 딱지는 당시 상황에서는 죽음과 같았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가 버린 가정에 분이는 엄마와 둘이서 살아간다. 그

---

33) 권정생, 앞의 책, 132쪽.

런 분이를 작가는 등뼈를 다친 곱사등이로 묘사한다. 작가는 왜 분이를 다치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팔이나 다리를 다치는 것이 아니라 등뼈를 다치게 하고 있다. 1년여를 앓다가 결국은 곱사등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년여란 시간이 전쟁의 시간을 의미하며, 등뼈가 굽어져 버린 것은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 분단 되어버린 역사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상징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분이는 열심히 일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행복한 세상이 온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행복해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 분이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이는 전쟁터에 있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이니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그리고 곱사등이인 나의 아버지는 밭지가 앓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이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분이가 추구하는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그런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분이는 바란다.

전쟁이 들끓었던 시절에는 자유란 찾을 수가 없었다. 생리적 현상인 방귀도 함부로 꾸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작품화하고 있는 것이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이다. 한국전쟁이 한 참 무르익을 때에 적군인 인민군과 아군이었던 국군에게 끌려가서 고문과 매질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가 있다.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는 초가집만 있는 솔개마을에서 방귀를 뽕뽕 꾸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때 아직 마을에 전깃불도 없고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없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일이란 기껏 방귀 꾸는 것하고 닭싸움 시키는 것과 같은 일들뿐이었다.

두 아버지는 방귀 시합을 하며 물방앗간 개울을 건널 때도 굴다리 밑을 지날 때도, 신작로를 따라 걸으면서도, 한티재를 넘으면서도 줄 곧 방귀 소리를 이었다. 이렇게 자유로웠던 그들에게 전쟁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인민군 앞에서 방귀를 꾸었던 용원이네 아버지는 총살당하기 직전에 놓여졌다. 순난이네 아버지는 국군 앞에서 “뽕”하여 군화에 치이고 고꾸라져 버렸다. 이들은 사흘 만에 풀려났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앞산 응달에 하얀 눈이 덮인 어느 날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한국전쟁이 치열하였던 상황에서 인민군과 국군이 들고 나고 하던 마을은 대부분이 살벌하게 변해 버렸다. 그야말로 접전지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싸웠던 전쟁이라 해도 무섭기가 이 마을보다는 덜 하였을 것이다. 감정이 막무가

내로 이입된 마을 사람들의 대립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다. 작가는 인민군은 나쁘고 국군은 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의 아버지의 죽음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두 아버지는 인민군과 국군에 의하여 결국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작가는 반공방첩이란 표어 아래 공산주의를 비방하던 70년대에 작품을 그리면서도 결코 반공적이지 않았다. 그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데올로기가 낳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냉철한 관점으로 역사적 정황과 흐름을 읽었던 것이다. 결코 이념은 평화를 낳을 수 없으며,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치유 받고, 다시금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이념적 대립은 죽음과 전쟁만 불러 올 뿐이다. 전쟁은 단순한 인간의 생리적 현상마저도 죽음의 이유로 만든다. 작품에서 시원스럽게 꺾어댈던 방귀는 솔개 마을의 평화로움을 말해 주기도 한다. 이념적 대립이 사라질 때에, 솔개 마을에서는 다시금 평화로운 방귀소리가 ‘뿌우웅’하고 들려 올 것이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지게에 걸머지고, 마음껏 뽐내며 방귀를 “뽕” 뀌어대는 민중들은 이념이 사라지는 것을 구원으로 여길 것이다.

작가는 작품 「따리골덕 할머니」, 「할매하고 손잡고」, 「패랭이 꽃」,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에서 전쟁이 낳았던 이념적 대립으로 발생되어졌던 고통들을 민족의 수난으로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지배되어지고 소외된 민중의 모습들이다.

사회과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사회구조를 이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민중의 성격 규명을 위해 사용하는 틀도 이분법적이다. 먼저 사회구조를 지배와 피지배로 이분한다. 이분의 기준은 정치적 수단의 점유여부, 경제적 생산수단의 점유여부, 그리고 문화지배를 가능케 하는 수단의 소유여부의 세 가지이다. 이러한 소유여부에 따라 하나는 지배집단이 되고 다른 하나는 민중이 된다는 것이다.<sup>34)</sup>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민중들의 모습은 정치적, 경제적 구도 안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민중 신학에서도 역시 그 민중들을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볼 때,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한 사실주의 동화에서 작가 권정생이 하고자 했던 말도 바로 민중의 해방과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작가는 이어지는 작품 「몽실 언니」를 통해서도 북한 공산당은 무조건 나

34) 한완상, 「민중론의 제문제」, 『한국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261-262쪽.



쁘다는 식의 양분적 의식을 뛰어넘는다. 독자로 하여금 한국전쟁을 새롭게 조명해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남달리 투철한 역사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작품 「몽실 언니」의 머리말에서 작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몽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딴 데 시집을 간 어머니도 나쁘다 하지 않고 용서 합니다.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사람들이 욕을 할 때에도 몽실은 그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몽실은 아주 조그만 불행도 그 뒤에 아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라나면서 몸소 겪기도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배우면서 참과 거짓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는 해방을 맞이하자 기대를 안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동포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조국의 현실은 그들을 ‘일본 거지’, ‘만주 거지’로 불러지게 만든다. 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어린 몽실의 삶은 가난과 전쟁으로 인한 처절한 현실과 함께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가파른 인생의 고갯길을 절뚝거리며 살아가면서도 누구하나 원망하지 않으며 험난한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 우리 민족의 비참한 역사와 고난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몽실 언니」를 통해서 작가가 추구하는 역사성을 재삼 상기해 보게 된다.

권정생은 여러 작품을 통하여 분단된 역사적 상황을 말하여 주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sup>35)</sup>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폭력에 둔다. 싸우는 아이보다 더 나쁜 것은 뒤에서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라며, 어떤 행동의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파괴를 부르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은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이념적 대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이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이념적 대립은 존재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작품들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이데올로기란 무의미함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어린이의 시선으로 씌어진 것이 바로 작품 「몽실 언니」이다.

몽실은 벌써 일어나 앉아 인민군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 봤다. 어둠 속에

---

35) 권정생, 「몽실 언니」 창작과 비평사, 1984, 머리글에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인민군 여자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왜 그러니?”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몽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까 낮에 태극기를 불태워 준 인민군 아저씨는 착한 분이셨어요.”<sup>36)</sup>

작품 「몽실 언니」에서 작가는 전쟁을 이유로 국군과 인민군을 편가르기 하지 않고, 똑같은 한민족이요, 한 핏줄로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1981년 울진의 시골 교회 청년회지에 「몽실 언니」를 연재하였다. 그러던 중 「새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여성잡지에 옮겨 연재하다가 잡지사 측에서 당국의 압력을 받아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해방이후 6·25와 굴곡 많은 근현대사를 통과하면서 만난 이웃들을 통해 인민군이든 국군이든, 신분이나 지위,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되지만,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작가 마르틴 부버는 작품 「나와 너」에서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나와 너’라는 관계와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를 구별한다. 인간이 서로 ‘나와 그것’의 만남을 가질 때에는 소외되고 심각한 현대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지만, 인격으로서 공존하는 ‘나와 너’의 만남은 모든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회복토록 한다는 것이다.

권정생은 부버처럼 모두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몽실이는 인민군 언니를 만나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인민군과 국군 모두에게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몽실언니의 태도는 다르다. 이념적 대립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만 이념을 초월한 사람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에는

---

36) 권정생, 위의 책, 109쪽.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념은 대립과 갈등만 생성해 갈 뿐이다.

몽실이는 배다른 동생을 돌보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짬추와 결혼하는 등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슬픈 삶을 산다. 그럼에도 독자들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나약한 ‘민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몽실이지만 그러나 몽실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더욱더 강인한 모습으로 또 다른 민중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말하였듯이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만났을 때에는 다 착하게 사귄 수 있다는 것이다. 몽실이를 들어서 작가는 착하게 살아갈 것을 권한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남 회구할 때 희망이 있음을 말한다. 작가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스스로 구원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초가집이 있던 마을」의 머리말에서 작가는 6·25전쟁을 두고 “아마 이 지구가 생긴 뒤에 이처럼 비참한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 다투게 된 전쟁도 아닙니다. 힘이 센 나라들이 만만하고 어리석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 싸움을 시킨 것”이라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명분을 내세웠던 외세의 개입을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의 소재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가족과 동무들을 잃고 슬프게 살아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이 겪는 전쟁은 나라를 잣더미로 만들고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앗아가는 비참한 것이었다. 휴전협정을 맺고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초가집이 있던 작은 마을의 행복은 ‘함께 어울려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다.

작가는 여기에서도 「몽실언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전쟁에서 ‘착하고 나쁜’ 것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명분을 내세웠던 외세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초가집이 있던 작은 마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 곳이 행복해 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그 행복된 구원이란 ‘함께 어울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작가는 인간이 인간들과 더불어 이득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내었던 이념은 전쟁만 부추길 뿐이다. 작품 「패랭이 꽃」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념적 대립은 인간 자신들이 판 구렁이에 빠져들 뿐이라는 것이다.

작품 「점득이네」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점

득이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말하고 있다. 만주에 살던 점득이네는 해방이 되면서 고향을 찾아 돌아오지만 얼마 후 겪게 된 전쟁으로 인해 점득이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 게다가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 시력마저 잃게 된다. 살아남게 된 남매 점득이와 점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 노래를 불러 돈을 모으게 된다. 만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 바로 휴전선이 가로막혀 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 왔다 떠나버렸다. 이 남매의 삶은 당시 ‘민중’의 처참한 삶을 대변한다. 전쟁이 부모를 잃게 하였으며, 점득이의 시력까지 가져가 버렸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민중들의 삶을 깡그리 앗아가 버렸다. 작가는 점득이의 삶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들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적 상황이 캄캄한 밤과 같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인가?

당시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만주거지’란 별명이 붙여졌다. 그 만주거지가 다시금 만주를 향하고자 준비하는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였으면 고아가 되어서도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려 하였을까? 여기에서 ‘민중’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암흑적임을 다시금 보여 준다. 그들이 떠남을 준비해야만 되는 현실을 그 무엇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인가? 풀리지 않는 현실적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 작가는 점득이의 눈을 멀게 만들어 그 현실의 참담함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루카치는 ‘또 다른 비극은 삶을 연소 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비극적 정열로 연소시킨 영웅은 본질적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존재형식이 아니라 군중이나 자기 자신의 본능이 지니고 있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려는 일종의 자기고양을 보여 준다고 한다.<sup>37)</sup> 점득이의 삶이 바로 루카치가 말한 비극적 자기고양의 삶은 아닐까?

점득이 남매가 돌아가고자 하였던 그 길은 오늘 까지도 열려 있지 않다. 우리시대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작가는 현재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는 사회적 정황을 거짓(행복)으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작가는 「몽실 언니」, 「초가집이 있던 마을」, 「점득이네」에서 6·25전쟁을 통한 백성의 고통과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민중의 시각에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념적 대립으로 행복할 수 없으며, 나쁜 사람 착한 사람도 가릴 수 없게 됨을 실감하게 된다. 이득을 얻기 위한 이념적 대립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마을을 폐허가 되게 하며, 국가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37)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역, 『소설의 이론』, 범우사, 1990, 51쪽.

작품 「무명저고리와 엄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작품은 우리 역사의 근현대사를 한 줄로 꿰고 있다. 일제 침략의 시절부터 독립운동, 강제 징용, 6·25전쟁, 월남 참전으로 이어지면서 겪게 되는 갖은 수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과 사건들은 인물들의 삶을 참혹함으로 점철되게 한다. 일곱 아이를 낳은 엄마로부터 여섯 번째 아들 막돌이만 빼놓고는 모두가 떠나가고 만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새끼 뱀 누렁이를 팔아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시고, 아이들은 징용으로, 전쟁으로, 월남으로 떠나게 된다.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의 소식으로만 남는다. 한 쪽 다리만 남아있는 막돌이는 피난길에 폭발물의 파편으로 다리를 잃게 된다. 엄마는 막돌이의 한 쪽 다리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서려 하지만 죽고 만다. 한 쪽 다리로 혼자 되게 된 막돌이는 절뚝거리는 분단의 시대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작가는 「몽실 언니」, 「초가집이 있던 마을」, 「점득이네」에서 하나 같이 6·25전쟁을 중심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작품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과 ‘고통’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는 등장인물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전쟁을 다룬 동화를 쓴 것은 어떤 소명의식이나 대단한 애국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것에 대해 ‘아니오’를 말하고 싶었고, 그런 동화를 통해서나마 작은 희망을 가져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다.<sup>38)</sup> 권정생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그 이웃들의 서러운 삶을 투영시킨 것이다.

권정생은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을 남기면서, 우리민족의 역사를 민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작품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무겁다. 개인의 고난을 들어서 가족의 비참함으로, 그리고 이를 확대하여 시대의 고난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강한 역사의식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만든다.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기에, 작품의 구성을 즐겁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잔해로 인하여 우리들의 자녀가 또 한 번 소리 없는 전쟁에 희생되어가는 이야기를 작가는 작품으로 남기고 있다. 작품 「우리들의 5월」은 치유되어야 할 상흔을 한눈에 보게 하고 있다.

38) 권정생, 「영원히 부끄러울 전쟁」,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 2001, 143쪽.

장수는 그렇게, 왜 아버지가 방위 국군이 되어 이발관 문을 닫아놓고 돈 벌이도 못 하고 어머니가 공사장에 나가야 했던가, 그 이유도 모른 채 죽었다.

동근이는 다음날 아침, 병실 창문이 흰히 밝아 올 즈음 할머니의 손에 고사리 손을 맡긴 채 숨을 끊었다.

“동근아, 할아버지 만나면 보여 줄 거라고는 너 하나뿐이었는데..... 6·25가 너의 할아버지를 끌고 가 버렸는데, 그 6·25의 자취가 아직까지 남아서 너마저 데려가 버렸구나. 동근아, 동근아아..... ”

할머니는 소리 없이 찢어질 듯한 울음을 울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의 시체를 거두고 나자, 병실은 텅 비었다. 그 텅 빈 병실로 밝고 아름다운 5월의 햇빛이 비쳤다.

아카시아 꽃망울이 피었다. 아카시아 꽃이 향기와 어우러져 풍겼다.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고, 슬픈 한국의 아이들이 있는 5월, 그 5월은 동근이의 할머니처럼 소리 없이 찢어지듯 울고 있었다.<sup>39)</sup>

밝고 아름다운 햇빛이 비치는 5월 어느 날, 동근이와 장수와 순늬이는 셋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마중을 나갔다. 동근이는 6·25 때 북으로 끌려가신 뒤 아직까지 소식을 모르는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셨으니,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 가장 훌륭하다고 한다. 장수는 우리 아버지는 방위 국군이며, 그래서 훌륭하다고 자랑한다. 이렇게 누가 더 훌륭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언덕길을 올랐다. 장수는 순늬이가 방위국군은 하나도 훌륭하지 않고, 선생님이 훨씬 훌륭하다고 힘주어 말하자 약이 오른다.

언덕길을 조금 벗어나서 축축한 숲 속으로 따로 떨어져서 걸었다. 거기서 장수는 길쭉한 사이다 병처럼 생긴 쇠덩어리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다시 의기투합하여 그 쇠덩어리를 엿하고 바꾸려 한다. 그 때, 학교 쪽에서 돌아오는 6명의 아이들과 만나게 된다.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은 병 같은 쇠덩어리를 돌맹이로 두들겼다. 쇠덩어리가 깨뜨려져도 엿은 바뀌 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한번, 두 번, 다시금 힘껏 때리자 구름 같은 먼지가 일어나면서 폭음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아홉 아이들의 몸뚱이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버렸다. 팔이 떨어져 나간 아이, 다리가 떨어져 나간 아이,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큰 상처가 난 아이, 한순간에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 있었다. 병원으로 옮

---

39) 권정생, 앞의 책, 102쪽.

졌지만 끝내 모든 아이들은 죽고 말았다.

전쟁이 남기고 간 잔해는 또 다른 전쟁을 남겼다. 치유되지 않는 상흔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전쟁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 대립으로 가시철망을 두르고 있는 우리들의 5월은 밝고 아름답지만 민중의 삶은 휴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쟁 때에 북으로 끌려가신 할아버지의 소식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가 사이다 병 만 한 췌덩어리에 목숨을 잃어 버렸다. 작가는 전쟁의 상흔이 얼마나 깊게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로 앓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작가는 휴전선이 해체되는 날까지 상흔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민족의 가슴가슴에 깊은 한과 상흔으로 응어리져 있을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시원스레 풀어나갈 대안적 정답을 결코 찾으려 하지 않는다. 역사를 결코 왜곡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곡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그려 나가다 보니 위에서처럼 작품이 너무도 비극적 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중신학은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한국전쟁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작가가 말하였듯이 인간이 이념을 앞세워 이득을 얻으려 하기에 비극적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민중’의 사건으로서 구원의 도구는 무엇일까? 작가가 말하듯이 ‘이기적 욕심을 버리는 것’이 구원이라 한다면, 그러한 욕심을 버릴 때 이념적 대립은 절로 사라질 것이다. 작가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던 하느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인간은 물론 자연의 모든 피조물도 행복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사실주의 동화들을 통해 작가 권정생이 독자들에게 설파하려고 한 바 최종적인 교훈이다.

## 2) 인간 소외와 물질 문명 비판

권정생은 전쟁과 식민지 이전, 자연과 더불어 생활했던 과거 농촌의 모습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며 이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는 산문과 대담을 통해서도 농촌의 중요성을 역설 한 바 있다. 그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알고 지내던 초가집이 있던 마을이며, 파괴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의 농촌 생활이다. 농촌에서의 노동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가는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공정한 관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정신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는 가난한 자도, 빼앗기는 자도 없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어울려 사는 수평적인 사회, 그러한 삶을 농촌 공동체에서 찾는다. 우리의 자연은 농촌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농촌의 삶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곧 농촌의 삶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이러한 사상은 항상 작품에서도 반영되어,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물질문명을 거부하며 도시화의 생활상을 묘사하지 않는다. 도심을 배경으로 꾸며진 작품들은 아주 희소하다. 사회체제를 고발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구사 할 때가 아니면, 도심은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작품 「금복이네 자두나무」는 시대의 변천사를 말해주는 ‘길’이 뚫리면서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이다. 최주사댁 문간채에 살고 있는 금복이네에게 탐욕스런 지주인 최주사는 적선하듯 밭을 판다. 금복이네는 전 재산을 들여 밭을 사서 자두나무를 심고 잠시 희망에 부풀어 지낸다. 얼마 후 최주사는 그럴 듯한 이유로 금복이네를 문간방에서 몰아낸다. 최주사가 금복이네에게 판 밭은 신작로 공사에 들어가는 밭으로 드러난다.

금복이네 자두나무 밭둑 밑으로는 소달구지길 이었습니다.

소달구지 하나가 가까스로 다닐 만큼 좁았습니다. 그 소달구지길 건너편에 바다처럼 펼쳐진 넓은 밭이 모두 최 주사댁의 것이었습니다. - 중략 -

최 주사의 말을 빌리면,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착한 일을 베풀)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문간방에 함께 살아 온 인정을 생각해서, 금복이네가 그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아 둔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자기네의 밭을 사라고 선심을 썼다는 것입니다.

- 중략 -

그런데, 자두나무 밭에 뜻밖에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용담 마을 앞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닦는다고 소문이 떠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렇게 졸지에 닦힐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금복이네 자두나무 밭이 새 길을 닦는 데 몽땅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sup>40)</sup>

---

40) 권정생, 앞의 책, 148-149쪽.



새로운 신작로가 뚫리는 도로계획에 의하여 금복이네의 전 재산이 담겨진 밭이 몽땅 파헤쳐져야 되는 판국이다. 악덕지주인 최주사의 꾀임에 빠져 금복이네는 전 재산과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소달구지 하나가 가까스로 다닐 만큼 좁았습니다.’라고 하던 옛길에 이제는 훤히 신작로가 뚫린다는 것이다.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소달구지 길은 자꾸만 역사의 현장에서 밀려난다. 산업화의 물결은 악덕 지주를 더욱더 악하게 부추긴다. 산업화 이후 발생한 ‘빈익빈 부익부’현상에 금복이네가 휘말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작품 「금복이네 자두나무」는 구약성경에 있는 「나봇 포도원」의 이야기를 인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이다. 왕궁 가까이 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게 하고 싶었다.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돈으로 주라하면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세벨왕비는 모략을 꾸면서 나봇과 자녀들까지 죽이고 왕으로 하여금 포도밭을 차지하도록 만든다.<sup>41)</sup>

나봇의 전 재산을 빼앗고 목숨까지도 빼앗아가 버린 아합왕과 최 주사는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두 모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준다. 최주사의 악함으로 금복이네는 전 재산을 빼앗기고, 문간채에 살던 집까지도 잃게 되어 버린다. 가진 자의 횡포로 민중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 진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민중의 삶은 구원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현실적 문제들은 도식적인 구원의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작품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는 장날이면 달구지를 몰고 마을 사람들의 장짐을 실어 나른다. 장을 향해서 마을을 떠날 때에는 쌀 짐도 싣고, 고추 부대도 싣고, 새끼 돼지를 담은 다래끼도 싣는다. 장에서 돌아올 땐, 무거운 농기구랑 비료 부대도 싣는다. 간혹 가마솥도 싣는다. 할아버지는 푼푼이 돈을 모아 새우젓과 다른 장거리를 사오기도 한다. 집에는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계셨다. 아흔 살의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면 으레 건넌방 방문을 열고 내다봤다. 할아버지는 사탕 봉지를 내어 드린다. 그리고 며느리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지선이와 중학교 1학년인 지수가 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 남매가 달구지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41) 「열왕기상21 : 1 - 16」, 『개역개정 비전성경』, 두란노 서원, 2007, 553쪽.

아들은 지선이 첫돌을 지났을 때 강원도 탄광으로 가서 반년이 채 못 되어 굴속에서 죽었다. 가난한 집안을 좀 더 살기 좋게 하고 싶어 갔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죽은 지선이 아버지 대신 받은 얼마의 보상금으로 할아버지는 소달구지를 마련하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할아버지가 아들 대신 일을 해야만 하였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장에 가기 위해 소달구지를 몰고 느티나무 밑으로 일찍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벌써 큰 기와집 경운기가 버티고 서서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기와집 아들이 부리는 기계를 신기하게 들여다보면서, 가지고 온 짐을 거기에다 다투어 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쩐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큰 기와집 아들과 미리 짜고서 경운기를 사 들여와서, 저렇게 보란 듯이 짐을 싣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앉아 버린 것처럼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만치에다 달구지를 세워 놓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신품이어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경운기엔, 소달구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까지 가장 자리에다 태웠습니다.<sup>42)</sup>

할아버지는 큰 기와집 아들이 부리는 경운기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워 할만큼 전근대적이다. 당연히 산업화에 의해 오히려 자신의 생계를 빼앗겨 버린 것이다. 아니다. 온 가족의 생계였던 것이다. 이미 아들이 산업화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탄광에 몸을 바쳤을 때부터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다. 아들이 산업화의 역군으로 뛰었을 무렵, 기계화의 물결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소달구지는 자식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 자식의 목숨과 같았던 소달구지는 할아버지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그런데 문명화의 바람은 할아버지의 직업이요, 가족의 생계이며 목숨과도 같았던 소달구지를 경운기에 밀려나게 해 버린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편리함을 가져다주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황폐화 시킨다. 문명의 이기는 부자들만이 사용 가능하다. 문명의 이기에 밀려난 할아버지는

---

42) 권정생, 앞의 책, 22-23쪽.

분명 구원 받아야 될 ‘민중’임이 분명하다. 작가는 비좁고 비틀린 길들이 고단한 할아버지의 손금처럼 나있던 시절, 농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고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바로 수달구지였던 점을 들어서 그것을 경운기로 표상되는 기계화 사회구조와 대비시킨다.

작품 「빨간 책가방」의 영화는 올봄이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돈벌이 간 어머니가 봄이 오면 빨간 책가방을 사가지고 오신다 하였다. 그런데 지난 선달그믐께 우체부 아저씨가 갖다 준 편지에, 올 설에도 못 오겠다는 기별이 왔다. 영화는 그동안 할머니와 오빠랑 살아왔다. 봄이면 서울에서 돈 벌어 빨간 책가방과 맛있는 과자를 많이 사 오실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였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일부러 친구들에게 자랑을 더 하였다. 영화는 학교가기 이틀 전 할머니랑 장에 가서 책가방과 공책, 연필, 필통을 샀다. “할머니, 새 옷 안 사요?”하고 묻고 싶은 걸 꼭 참으며 집으로 돌아온다.

이 작품에서는 영화가 부모님을 서울에 빼앗겨버리는 셈이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70-80년대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맡겨두고 서울로 돈벌이하러 간 부모들이 많았었다. 작가는 작품의 영화를 들어서 산업화 시대의 한 단면을 가슴 아리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시골에는 젊은이가 없다. 문명을 누리기 위해 도시로 나간 그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텅 빈 농촌에 남아 그들대로 또 외롭기 짝이 없다. 달구지만 다니던 한가롭던 시골길엔 버스가 들어오고 택시가 들어오고, 오토바이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안방마다 텔레비전이 놓였고 철 대문을 잠가 버리면 도시 아닌 도시 속에서 담 너머 앞뒷집이 그토록 멀어진다. 내가 살던 마을에서 작년에 두 노인네가 자살을 했다. 한 노인은 농약을 마시고, 한 노인은 소주에다 수면제를 타서 마시고 죽은 것이다. 모두가 외로워서였다.

황금만능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우리들의 가치관은 스스로도 모르게 물질 문명 속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 중략 -

그래서 우리는 돈에 기만당한 채 점점 행복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sup>43)</sup>

작가는 개인적인 수상록에서도 ‘달구지가 다니던 한가롭던 길’에 문명의 정

43) 권정생, 「두 개의 이야기」,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종로서적, 1986, 177-178쪽.

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한가롭던 농촌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촌 마을은 쓸쓸하고 황량하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행복은 결코 물질문명의 발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작품 「금복이네 자두나무」, 「웃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 「눈 덮인 고갯길」, 「빨간 책가방」은 산업화와 기계화에 삶의 자리를 빼앗겨 버린 농촌 마을의 가슴 아픈 이야기 들이다. 작가는 이정표가 없어도 길 가던 나그네가 따라가기만 하면 동네를 찾을 수 있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소달구지’를 들어서 전형적 농촌을 말하며, ‘경운기’와 ‘서울’을 들어서 기계화 되어가는 산업화를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악덕지주에게 빼앗겨 버린 금복이네 전 재산과, 경운기에 밀려난 소달구지와 서울로 돈벌러 가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할아버지의 삶을 민중의 삶으로 보게 한다. 그들은 위로 받고 구원받아야 할 민중임이 확실 한 것이다. 물질문명까지도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밀어내어 버린 것이다.

## 2. 우의적 동화에 구현된 민중 의식

권정생의 작품들 중에는 우의적 환상으로 동식물이나 무생물과 같은 비 인격체에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우의적 동화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하느님과 같은 초인적 존재에서부터 생물, 무생물, 온갖 사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인격화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수법은 현실을 초탈하는 상상 활동을 통해 의인화된 대상에 대한 상징적 감정이입을 유발한다.

우의적 환상은 전래동화는 물론 창작동화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인화 수법을 사용한 동화라고 해서 모두 환상동화라고 할 수는 없다. 권정생의 우의적 동화들은 비록 환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실의 문제를 떠나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의 우의적 동화는 사실주의 계열의 동화와도 다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열의 동화에서는 주로 ‘구원’의 문제가 거론된다는 점이 그렇다. 요컨대 권정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바탕으로 역사성을 추구하는 작품을 고집하는 일면, 우의적 환상으로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을 구원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중신학은 사회 경제사적 억압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 민중의 한풀이

를 문화신학이라 한다. 서남동은 ‘한’에는 두 가지로서 ‘패배감’과 ‘강인한 생애에 대한 의지’로 본다. 그는 패배감보다는 강인한 생애에 대한 의지에 초점을 두면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단결성이 혁명을 위한 파격적인 힘으로 표출되어 진다는 것이다. 동학혁명과 3·1독립운동과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 폭발된 혁명으로 민중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의적 동화에 속하는 작품 「짱구네 고추밭 소동」과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를 통해 민중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 힘이 권정생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민중신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 1) 저항을 통한 공동체적 삶의 지향

권정생은 자신의 우의적 동화를 통해 현실 정치의 비극적 상황이 어떻게 구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모순과 불합리가 있는 현실사회구조에서 합리적 해결이 어떻게 가능할 지를 환상적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동심천사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계층의 주인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처절한 현실적 고통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 환상의 세계에 이르도록 한다.

우선 작품 「짱구네 고추밭 소동」을 살펴보자. 짱구네 엄마와 누나는 이른 봄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 가쁘게 오르내리며, 거름 소쿠리와 똥오줌 자배기를 저 날랐다.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김을 매었다. 고추밭에는 이들의 정성으로 탐스러운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런데 마을에 도둑이 와서 밤새 고추를 따간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에그, 요즘 세상은 세워 놓고 눈 뽑아 갈 세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들을 한다.

차츰 고추들은 빨간 빛깔 속에 간직해 뒀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불의와 싸우자, 싸우자!”

고추들은 씨근거리며 자루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루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둑은 무거워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자루는 자꾸자꾸 부풀어 올랐습니다. 속이 팍 찬 풍선처럼 커졌습니다. 도둑이 끄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고추들이 힘껏 소리칩니다.

도둑은 비탈길을 간신히 내려갑니다. 캄캄한 밤길은 걸어가기가 여간 어

렵지 않습니다. 도둑은 땀을 비죽비죽 흘립니다. 자루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금방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어디에 부딪치기만 하면 터져 버릴 듯합니다.

상수리나무 숲 속은 한층 더 어두워 길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둑은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바로 앞 숲에서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들쥐 한 마리가 풀 사이로 달아났습니다. 도둑은 얼결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면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도둑이 뒤로 나자빠질 때 고추 자루가 바위에 ‘짱!’ 부딪쳤습니다.

그 순간,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고추 자루가 폭발했습니다.<sup>44)</sup>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였던 것이 짱구네 고추밭에도 들이닥치고 말았다. 작가는 여기에서 고추밭 사건을 일종의 우화로 사용하고 있다. 도둑에게 끌려가야만 되는 고추들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영차, 영차!”하면서 힘을 모은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 버린다. 자루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만큼 분노로 가득 차 버린다. 고추들은 도둑에게 끌려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작은 고추이지만 마음을 모두고 힘을 모은다. 고추 자루는 드디어 폭발하게 된다. 여기에서 작은 고추는 억눌리고 소외된 민중의 모습이다. 고추들은 억압받고 고난을 당한 민중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은 ‘강인한 생애 대한 의지’로 그들의 한을 표출하게 된다. 작가는 폭발된 고추 자루의 힘을 통해 혁명을 일으켜 가는 민중의 움직임을 고찰토록 한다. 작가는 고추를 들어서 군사독재가 팽배하였던 우리나라의 80년대를 우유하고 있는 것이다. 고추는 군사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힘이 적고 초라해 보이는 민중을 뜻한다. 민중의 힘은 도둑을 이기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제자리걸음과 같을 지라도 승리함으로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작품 「짱구네 고추밭 소동」에서처럼 민중의 힘을 발산하는 우의적 작품으로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가 있다.

“어깨가 하도 아파서 한 번 두들겼어.”

새매도 능청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엉덩이가 아파서 두어 번 툭툭 친 거야.”

---

44) 권정생, 앞의 책, 54-55쪽.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난 다 봤다고.’

새매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눈알만 알뜩히 흘려 줬을 뿐입니다. 까마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줄곧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날개를 움직였다는 것만도 나쁜 짓인데, 날려는 시늉까지 했으니 잡히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새들의 나라는 언제부터인 날개를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물론 날개를 마음껏 쳐 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새들은 모두 죽지를 축 늘어뜨리고 두 발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조그만 굴뚝새로부터 커다란 독수리까지 한결같이 어정어정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녀도 잘만 살면 되는 거야.”

“기어 다녀도 배만 땡땡 부르면 되는 거야.”<sup>45)</sup>

이 작품에서 권정생은 우의적 기법을 통해 새들이 언젠가부터 날개를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는 ‘날개짓’을 그 고유의 속성으로 갖고, 또 그 날개짓은 자유를 상징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듯 새가 그 날개짓을 말살당한다. 새들은 이제 어정어정 걷는 허수아비에 불과해진다. 새들은 자유로움 대신 ‘배부름’을 택한다. 새들은 차츰 날개 짓을 잊어가며 배부름이 길들여지고 있다.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 책 뒷면인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군사 독재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나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 때의 상황에서는 우의적 기법으로 나라의 상황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런 우의적 작품들의 결말이다. 대부분 이 계열의 작품들은 현실 문제를 별다른 저항 없이 탈출 가능한 것으로 형상화한다.

답답해진 것은 어린 새들이었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아직 정직하고 용감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어린 새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시원한 때였습니다.

45) 권정생,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닷컴, 1991, 132쪽.

하늘을 가득 메우듯이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 까치, 새미, 딱따구리, 황새, 두루미, 메추라기, 독수리.....  
 어쨌든 그 많은 새들이 푸른 창공 높이, 한꺼번에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어린 새들이, 다음엔 청년 새들이, 그다음으로 많은 어른들과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새들까지 두 날개를 훨훨 펼치며 날아올랐습니다.  
 너무도 쉬웠습니다.  
 산꼭대기의 허수아비는 진짜 허수아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sup>46)</sup>

현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저항 없이 구원의 돌파구를 찾아내곤 하는 권정생 작품들은 대부분 우의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렵고 절망적인 현실상황을 회화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전통 문학적 정서와도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보여 진다. 산꼭대기의 허수아비는 무서워서 날개 짓을 포기하고 살았던 새들이다. 그런데 세상 규칙에 물들지 않았던 어린 새들은 답답하다. 그들은 창조주가 창조하였던 모습으로,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사회와 정치가 그들을 억압할지라도 구속되지 않으려 몸짓을 하는 것이다. 어리다는 것은 어두운 사회에 물들지 않았기에 순수하며, 용감하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1980년 군사독재에 저항하였던 청년들의 물결이 있었다. 여기서 파생되어 민주자유화의 물결이 출렁이게 되었다. 작가의 작품에서도 가장 먼저는 어린 새들이, 다음엔 청년 새들로 이어지는 날개짓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우의적 기법을 사용해 자신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적 정황을 역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작품 「짱구네 고추 밭 소동」,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를 통하여 작가는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자연스럽게 뚫고 나아가고 있다. 특히 억압과 분노를 내포하고 있는 비극적인 구성이지만, 독특한 판타지적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군사 독재의 현실적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작가는 짱구네 고추밭의 ‘고추’들을 사용하여 역사적 어둠을 물리치도록 만든다. 날개 짓을 포기하며 살아갔던 새들에게도 한꺼번에 힘을 모아 ‘군사 독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도록 한다.

우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역사적 상황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들 작품의 결말은 앞서 비극적이기만 했던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 보여준 결말과는 사뭇 다르다. 우의적 작품들에서 혁명을 위한 파격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고추’와 ‘새’들은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 작품

---

46) 위의 책, 139-140쪽.



에서 민중은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다. 그들은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민중들이 ‘메시아적 역할’을 충분히 실현해 보이고 있다.

## 2) 자기희생과 현실의 극복 가능성

권정생은 우의적 기법으로 인간 세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을 흥미진진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반영한다. 특히 그는 환상적 기법을 사용하여 고난을 극복한 삶의 존재 가치나, 자기희생을 통한 구원자적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점이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과 구별되는 우의적 동화 작품들이 가진 특징이다. 이들 작품에서 권정생은 자신을 모두 버리게 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얻게 된다는 사상을 설파한다. 그런 삶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희생은 자기 자신을 구원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신인 것이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영화예술가의 한사람으로 평가되는 러시아 출신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현대세계의 비극의 핵심은 자기희생이라는 인류의 유구한 정신적 전통이 고갈되어버린 것에 있다고 갈파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타르코프스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세계가 갈수록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변해가는 것은 조건 없이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의 원리’에 기초한 인간행동의 여지가 좁아져 가는<sup>47)</sup> 탓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권정생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의 자못 의의가 크다.

권정생의 등단작 「강아지 똥」은 자기희생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대표작이다. 돌이네 흰둥이가 누고 간 강아지 똥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똥이라고 놀림을 받게 된다. 그런데 소달구지에 서 떨어졌던 흙은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엔가 귀하게 쓰일 거야.”하고 말해준다. 강아지 똥은 병아리에게도 “모두 찌꺼기뿐인걸”하고서 버림을 받는다. 마침내 민들레를 만나면서 자기 존재를 재인식하게 된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강아지 똥이 필요하다는 민들레의 말에 자신의 몸을 부숴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바꾼 것이다.

---

47) 이계삼, 「진리에 다가가는 영혼: 권정생의 문학 세계」, 『녹색평론』, 녹색 평론사, 2001, 83-84 쪽.

강아지 똥은 가슴을 울렁거렸습니다. 어찌면 며칠 전에 제 가슴 속에 심은 별의 씨앗이 싹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물어 놓고 얼근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야.”

민들에는 예사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 중략 -

“네가 거름이 되어 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야.”

‘아, 과연 나는 별이 될 수 있구나!’<sup>48)</sup>

강아지 똥은 자신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준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녹여 없애주는 행위로 인하여 별처럼 고운 민들레꽃을 피우게 했던 것이다. 강아지 똥의 희생이야말로 곧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표상이 희생을 통한 거듭남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민중신학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고난과 희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는 ‘민중의 사건’이야말로 강아지똥이 실천한 행동이다. 이러한 희생은 영원성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에서 희생하는 강아지 똥의 모습은 긍정적 자기 인식과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희생의 삶을 우의적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또다른 작품으로 「소」를 들 수 있다. 소는 어둡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며 현실적 고통도 역시 무거울 뿐이다. 소는 밭을 갈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임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내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작품 「옷들 감나무 집 할아버지」, 「소」, 「들국화 고갯길」의 소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달구지를 끄는 일을 하고 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끌어야만 하는 고된 임무에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주인이 고삐를 끌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들은 주인이 채찍으로 때려도 자신이 잘못했

---

48) 권정생, 「강아지 똥」, 『먹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1999, 68-69쪽.

기 때문이라 생각할 만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거나 비참해 하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는 고난을 견뎌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각된 모습(Imitatio Christi)속에서, 즉 구체적인 대리적 고난 속에서 세상의 악을 삼킬 수 있다고 민중신학은 말한다. 권정생의 여러 작품들에 등장하는 ‘소’들의 희생적 모습이 바로 그렇다. 작가는 자기희생적인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주인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역시 소의 목숨보다 돈인 것이다.

소는 갑자기 걸던 걸음이 힘없이 떨어졌다. 소는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자기가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소는 속아 산다고 생각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달구지를 끄는 일도, 발갈이를 하는 것도 모두 즐거운 자기 몫의 일로만 생각했다. 좀더 정성껏, 좀더 부지런히 일하고 싶었던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했다.

소는 지금도 절뚝거리며 다리를 이끌고 걸어가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굳게 믿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말고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sup>49)</sup>

“아아나, 하느님도 한눈만 팔고 게으름피우는 소는 싫어하실 거야. 우린 가끔 회초리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해.”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할머니 소는 웬지 콧등이 찌금찌금 더워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회초리로 맞아 온 엉덩이는 살가죽이 굳어 버려 아무렇지 않았지만, 가슴속이 따갑도록 서러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난 언제부터인지 똥똥 떠가는 흰 구름도 보고 싶고, 먼산봉우리도 보고 싶고, 자꾸자꾸 한눈을 팔고 싶어졌어요. 수레가 무거우면 그렇고, 일이 고달플 때마다 그랬어요.”<sup>50)</sup>

작품 중에 우의적 기법으로 나오고 있는 소들은 성스러운 소명의를 가지고 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몸이 불편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주인이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건강한 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한다. 주인을 원망하며 서러워하기 보다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인을 위하여

49) 권정생, 「소」, 『사과나무 밭 달님』, 창비, 1978, 48쪽.

50) 권정생, 「들국화 고갯길」, 『사과나무 밭 달님』, 창비, 1978, 22-23쪽.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권정생이 우의적으로 소를 등장시켰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보다는 주인을 생각하는 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타적인 희생적 삶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구속 사역을 묵묵히 담당했던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유사한 예가 작품 「어시장 이야기」에서도 등장한다. 이 작품은 우의적 기법과 팬터지로 멸치, 조기, 문어, 명태 등의 물고기들의 희생적 삶을 묘사한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곧 팔려 가야 하는 운명인데도 아름다운 영혼만 있으면 바다고 갈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문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웁은 말이야. 나의 다리도 모두 뿔뿔이 헤어져 갔어. 그렇지만 그건 아무 상관 없어. 다리뿐 아니라 이 머리통까지 부서져 없어져도 괜찮아. 아름다운 영혼만 살았음.....”

갑자기 문어 할아버지의 얼굴이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 꼭대기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 중략 -

“그래, 맞았어. 우리들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려면 거추장스러운 우리 몸뚱이를 전부 아낌없이 써야 한단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들의 임무를 다 하여 내 몸을 남을 위해 바쳐 일하면, 저절로 영혼은 꽃처럼 곱게 피어난단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푸른 바다 속 숨어 있는 진주알처럼 반짝이고 있단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고향 바다로 가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답게 살아가는 거야.”

고기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얼마 남지 않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그리운 바다로 가게 될 거야. 먼저 헤어져 간 친구들은 모두가 제 임무를 마치고 벌써 앞서 갔을 거야. 남을 위하여 내 몸을 쓰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 거야. 보이지 않는 영혼에다가 조기는 조기 모양의 옷을 입히고 명태는 명태 모양의 옷을 입혀서 말야. 이제 우리는 걸치레한 옷을 벗고 본래의 모양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단다.”

숨을 죽이며 듣고 있는 고기들의 가슴속에 분명히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모두가 말없이 반짝이는 진주랑 펄럭이는 푸른 하늘을 가슴 가득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sup>51)</sup>

팔다리가 잘려 나가고, 언제 팔려 갈지 몰라서 근심하는 생선들에게 물어 할아버지는 서로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들의 임무를 다하여 내 몸을 남을 위해 바쳐 일하면, 저절로 영혼은 꽃처럼 곱게 피어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어 할아버지는 구원에 통로를 친절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권정생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죄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어지고 있는 원죄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체적 결함이나 태어난 환경 등이 그들을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사회의 바깥에 머무는 그들은 불구, 고아, 혹은 가난한 탓에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늘 구원을 꿈꾸고 영원한 삶을 희망하며, 스스로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작가의 사상이 민중을 작품의 중심에 설정하고 있으며, 작품 또한 민중의 시선에서 관점을 두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중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권정생은 순수한 영원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별빛’을 환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작품 「뜰배가 보고 온 달나라」와 「깜둥 바가지 아줌마」에서 대안세계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깜둥 바가지와 뜰배를 볼 수 있다.

얼마나 잤는지, 갑자기 눈앞에 화안하게 밝아 오는 바람에 저절로 눈이 뜨였습니다. 시공창 안에 꽃밭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수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더러운 자취는 요술처럼 간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뜰배는 혼잣소리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아냐, 넌 똑똑히 눈을 뜨고 있어.”

반짝반짝 귀여운 아기별이 곁에서 방실 웃으며 일깨워 주었습니다.<sup>52)</sup>

강물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물결은 사정없이 깜둥바가지의 뺨을 후려치며 떠밀고 갔습니다. 물결은 사정없이 깜둥바가지의 뺨을 후려치며 떠밀고 갔습니다. 다만 캄캄한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깜둥바가지는 문득 쪼그만 사기 접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귀엽던 눈동자

51) 권정생, 「어시장 이야기」,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115-116쪽.

52) 권정생, 「뜰배가 보고 온 달나라」, 『무명저고리와 엄마』, 다리출판사, 1994, 83쪽.

는 어찌면 저 하늘의 별처럼 어디에서 말뚝거리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각조각 바스러지던 그 순간, 한 개의 별이 되어 드넓은 하늘 위에서 반짝반짝 살아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깜둥바가지는 몸을 도사렸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도 지금 썩그만 사기 접시가 간 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깜둥바가지 아줌마는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에 곱게 웃음을 머금고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며 귀여운 사기 접시가 간 곳을 찾아 어두운 강물 위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sup>53)</sup>

작품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는 개구쟁이 돌이가 먹다 버린 똥배가 우물 모퉁이 시궁창으로 떨어지고 만다.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미래 없이 점점 썩어 죽어가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똥배 역시 절망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때 현실 속에서 꿈을 찾지 못하던 똥배는 꿈, 곧 팬터지를 경험하게 된다. 똥배는 꿈속에서 아기별과 함께 하늘의 은하수, 달나라, 견우와 직녀를 보고 슬픔도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부분임을 알게 된다. 꿈이라는 공간적 환상을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절망으로 가득 찼던 시궁창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똥배로 변하게 된다. 똥배가 돌아온 현실은 변하지 않은 시궁창이지만, 이제 그는 그 시궁창을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 자신감이 가득하다.

작품 「깜둥바가지 아줌마」에서 깜둥바가지는 부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늘 놀림 받고 천대 받는 존재였다. 상 위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그릇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언제나 좋은 반찬을 담은 어린 사기 접시가 깜둥바가지를 가장 업신여긴다. 하지만 깜둥바가지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웃기만 한다. 이를 지켜보던 똥배가 깜둥바가지에게 왜 사기접시를 혼내지 않느냐 묻지만 깜둥바가지는 끝까지 사랑해주면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사기접시를 감싼다. 그런데 주인의 실수로 사기접시가 깨지고 깜둥바가지는 더 이상 께매 쓸 수도 없을 만큼 닳게 되자 둘은 개울에 버려진다.

깜둥바가지는 낯선 강물 위에 떠내려가면서도 사기 접시 생각을 한다. 사기 접시는 부스러지는 순간 한 개의 별이 되어 하늘 위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도 사기 접시가 간 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작가

53) 권정생,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44-45쪽.

는 감동바가지를 우의적 인물로 설정하여 자신을 뽑내며, 자기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길 때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고 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타적 삶으로 항상 수용하는 자세로 사랑을 베풀면, 영원으로 통하는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작가는 시공간에 버려진 뜰배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림받은 감동바가지를 구원하는 통로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팬터지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별 빛은 수레바퀴 같은 운명을 계시하기도 하며, 자아성찰의 빛이 되기도 한다. 초월적이며 영원한 순수성을 의미하고 있는 별을 통하여 작가는 구원의 도구로 장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수 편의 우의적 동화를 통해 권정생이 제시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답이기도 할 것이다.

## IV. 권정생 동화의 종교적 의미

### 1. 자연에 수용된 하느님 세계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민중 신학을 도입하면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의 해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관심을 확대하여 피조물들의 보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피조물 모두를 ‘민중’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수와 민중의 관계를 보면, 예수가 활동하였던 운동의 장이 농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는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겨자씨와 같은 믿음”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경 문화에 종교의 토대를 두고 있다. 민중 신학 사상에서는 한 국가의 뿌리에 해당하는 근본으로 민중을 들고 있는데, 이 민중의 의미를 확대하여 본다면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하게 여겨지는 ‘똥’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사용하였던 ‘흙’ 등에서 권정생의 기독교적 민중 신학의 뿌리를 살펴 볼 수 있다. 작고 하찮은 것에서 자연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하느님의 섭리는 자연의 섭리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 속에 깃들어 있다는 작가의 말은 자연의 작은 것에서 그 하느님의 속성을 찾고 있다. 이는 민중 신학에서 작고 가난하며 억압받고 소

외된 민중에서 하느님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서 작가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민중 신학에서 나타나는 민중의 속성을 인물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체에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정생은 「강아지 똥」에서부터 최근에 발표된 작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에 이르기까지 하찮고 터부시여길 강아지 똥을 황금덩이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정생의 작품 「강아지 똥」 중에서, 강아지 똥은 항상 자신은 더럽고, 쓸모없는 것으로서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라고 하는 소명과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강아지 똥은 ‘쓸데없는 똥’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말에 희망을 꿈꾸게 만든다. 결국 강아지 똥은 민들레 싹의 거름이 되는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희생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성에 올라가고 있게 된다.

작품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에서는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 받은 몸인 걸요. 두 번 다시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향을 가질 수 없답니다.”라고 말하는 흙먼지 아기들에게 소라 할머니는 “하나님이 버리시다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틀림없이 너희들의 고향을 되찾는 날이 올 테니까 참고 기다려가.”라고 힘주어 말해 준다. 그러나 흙먼지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계곡을 지나 강물로 떠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다. 흙먼지들은 자신들에게는 하느님도 버렸으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길에 다다르고 있다는 심정을 느끼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서 눈물과 한숨을 말끔히 씻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용처럼 보드라운 흙으로 변화된 흙먼지 아이들은 농부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권정생은 흙이라는 무생물을 우의적 환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흙이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고향을 가슴에 품게 하고 있다. 우의적 기법이 아닌 현실적 상황이 적용된 많은 작품에서도 작가는 고향을 그리움의 소재로 남기고 있다. 또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자신을 구원토록 만들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강물이라는 공간을 사용하여 먼지 흙이 구원받아 부활된 새로운 고운 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다.

민중 신학자 서남동은 민중 신학의 전거로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신



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들고 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연 출애굽의 해방 사건이다. 당시 대제국인 이집트의 학정에 시달리던 최하층의 히브리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키고, 탈출한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제적인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는 실제 역사적 차원은 배제하고 종교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중 신학의 성서적 전거가 실제적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54)</sup>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면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종교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기에 우리 민중들에게는 가슴속에 있는 사회, 정치적 한을 역사 속에서 출애굽시대와 같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서남동은 우리 민중이 한을 분출하면서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이론으로 민중 신학을 정립하고 있다.

권정생은 서남동이 추구하는 민중 신학의 흐름에서 작품 「떠내려간 흙먼지 아이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흙먼지를 히브리인들이 밟았던 출애굽 여정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펜터지와 우의적 기법으로 하느님의 섭리가 하느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정생이 우의적 동화와 환상적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민중적인 도구들이 확실히 구원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따라 가는 것이다. 권정생은 자연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바로 ‘민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흙먼지를 우리는 ‘민중’으로 보는 것이다. 흙먼지 아이들은 ‘한’처럼 토해내는 이야기가 있다. “하느님이 보고 있지도 않으며, 버리셨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다.

우의적 환상으로 ‘강아지 똥’과 ‘흙먼지’를 소외되고 버림받은 ‘민중’으로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작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민중의 눈높이에서 작품이 보여 지도록 만든 작가의 관점은 보게 된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동화를 단순 명료하게 보여지는 작품이 많지 않다. 여기에서도 무생물인 똥과 흙을 통하여서 하느님이 자연의 섭리를 이끌고 있음을 먼저 관통하게 만든다. 그 속에 참으로 하찮은 물체로 여겨지는 것에서 하느님의 속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작가는 그러한 하느님의 속성에서 자연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것이다.

54)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51쪽.

## 2. 민중의 고난과 종교적 구원

권정생의 작품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을 파악해 보면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비정상인들이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작가는 부유하며, 귀족적인 성격의 인물의 설정 그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동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는 우의적 판타지에서는 하찮은 무생물까지도 희생적이며 터부시여길 것들을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그가 설정하고 있는 인물은 사람과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민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민중 신학에서 말하는 민중은 예수의 주위를 둘러싼 군중으로 뜻이 있어서 무엇을 듣고 배우겠다는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이 아니며, ‘병자와 신체 불구자’, ‘가난한 과부와 고아’,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이다. 권정생은 이러한 민중들과 같은 인물을 작품에 철저히하리만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인물들이 지극히 민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에게 비극적인 신체적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작품 「사과나무 발 달님」에서는 필준이 어머니가 실성하도록 만든다. 일제시대에 남편을 빼앗겨 버림으로, 정신이 그 때에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의 정신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패랭이 꽃」에서는 분이를 곱사등이로 설정하고 있다. 「뽕리골댁 할머니」에서는 난쟁이로 설정하며, 「해룡이」에서는 문둥병자로 「점득이네」에서는 한 쪽 다리가 절단되게끔 하고 있다. 「오누이 지렁이」에서 고아 남매인 지렁이는 앞을 보지 못하여, 봄이 와도 바깥으로 나가보려 마음도 못 먹는다. 흙 속에서만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냇가 이웃들」에서는 염소의 발에 짓밟혀 곱추가 된 아기 제비꽃과 홍수에 내려와 고아가 되어 버린 차돌맹이를 우의적 기법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깜둥바가지 아줌마」에서는 부엌에서 언제나 보리밥만 담기는 그릇으로 다른 그릇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바닥에 떨어져 얼굴이 찢어지자 냇물에 버려지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깜둥바가지 아줌마를 설정하고 있다. 「달개비꽃들이 읽은 편지」에서 진수는 맹인이자 고아이며, 「해룡이」에서 해룡이는 문둥병 환자로서 집을 떠난다. 고아로 머슴일을 하다 결혼하여 농토를 마련하고 자식을 낳으며, 날마다 행복이 더해갈 무렵 문둥병이 발병하게 된다. 그는 문둥병을 숨기며 괴로워하다가 홀로 가족들을 떠나는 것이다.

권정생은 「오누이 지렁이」에서 고아 남매인 지렁이를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으로, 「어느 시냇가 이웃들」에서 곱추가 된 아기 제비꽃을, 「깜둥바가지 아줌마」에서 얼굴이 찢겨진 깜둥 바가지를, 「달개비꽃들이 읽은 편지」에서 맹인이자 고아인 진수를, 「해룡이」에서 문둥병에 걸린 해룡이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병자이며 신체 불구자이다. 때로는 ‘절름발이’, ‘병어리’ 등으로 인물이 설정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하나같이 결손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중 신학에서 민중은 바닥에 깔리고 그 지배 기구에서 밀려 나가고 인간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 앓은 천민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난당하고 천민이 되고 죄인이 된 수동적 형태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천민과 죄인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민중의 메시아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새 시대를 가져올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권정생은 고아이며 소외되고 병자인 그들의 삶을 통하여 존재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때로는 사회구조나 역사적 상황에서 가져다 준 것들이 있다. 작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적 현실을 조명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한다.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불행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불행하지도 않으며, 주어진 삶을 순응하는 존재로 반응한다. 작가는 민중의 메시아적 성격처럼 작품의 인물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임이 민중의 천민과 죄인의 모습이다. 여기서 그들은 주체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소외되고 불행함을 물질적이지요, 현실적인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토록 하는 것이다.

### 3. 비극적 역사 속에 감춰진 소명

민중 신학의 역사성은 철저히 민중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사건들을 하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이야기 역시 그러한 해방의 연장선상에 놓여진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권정생은 우리의 역사적인 질곡 속에 방치된 자들로 여겨지는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그야말로 민중의 역사를 작가가 이끌어 내어 작품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민족적 슬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동화의 소재로 선택하고 있다. 작가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루어진 비극적 역사의 수용이, 왜곡 없이 바로 인식하여 극복해 나아갈 힘을 키우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권정생은 작품 「공 아저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묶여 있었던 1940년대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 역사 안에서 공 아저씨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떠올리면서 죽고 싶은 마음과 유혹을 뿌리쳐 간다. 그가 갖고 있는 힘ियो, 장애적인 요소들을 극복 할 수 있는 요소는 ‘고향’과 그리운 ‘가족’이다. 소외되고 가난한 공 아저씨를 인물로 설정하여 식민지인의 서글픈 역사를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권정생 문학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한 맺힌 고난의 이야기를 관찰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이 땅의 백성들을 한으로 절규토록 만들었으며, 정신적인 분열과 육체적인 고난은 그 때의 처절함을 대변해 주게 만든다. 권정생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처지에서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작품화 하였는데, 이는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어 독자들로 하여금 거짓됨 없이 보여주는 증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유물론자들은 항상 승리하게끔 장치를 설정하여 조종한다. 그러기에 승리자의 모습만 그리는 것이다. 연대기 기술자는 사건의 크고 작음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다. 다음과 같은 진실, 즉 이 지상에 언젠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에서 주목되어야 한다는 진실에 공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과거가 완벽하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구원되고 난 이후이다. 다시 말해 구원된 인류만이 그들의 과거의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인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되살아나는 과거의 한순간 한순간은 그날, 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의 일정표의 인용문이 될 것이다.<sup>55)</sup> 권정생은 역사적 유물론은 지양하고 연대기 기술자로 역사에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연대기 기술자는 구원의 인류만이 과거의 역사를 남김없이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정생은 연대기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가 온 몸으로 체험하였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비극을 꼼꼼하기 보다는 단면적인 민중의 삶을 들어서 역사를 말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는 우화적 환상에서도 역사성이 들어나는 작품을 보여준다. 그는 역사적 소명으로 민중신학을 접목하고 있는 작가로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

55)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44쪽.

발터 벤야민은 ‘현재에 의해 인식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상은 언제든지 현재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권정생은 아동도 역사적 현실의 왜곡 없이 바로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비극적 이었던 작품의 주인공들은 우리민족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이야기이며, 그들의 치유되지 못한 상흔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곧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상처와 아픔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모여서 이 땅의 현실과 역사를 조성하였다고 본다. 그럼으로 작품속의 민중들의 삶과 사건은 분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원인이 될 수 있다.

비극적 역사를 수용하고 있는 작품 「무명저고리와 엄마」는 전쟁으로 인해 겪게 된 한 가족의 슬픔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1918년 남편과 칠남매를 둔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엄마는 남편을 1919년 3월 만세운동에 참가함으로 잃게 된다. 맏이인 복돌이는 독립군이 되어 떠났다가 죽는다. 그 이후 엄마는 일본징용, 양공주, 한국전쟁, 월남전쟁 등으로 칠남매 중 무릎이만 남기고 모두 잃는다. 무릎이도 피난길에서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다. 남편과 자식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잃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엄마의 가슴 아픈 삶을 역사의 끈으로 이어가고 있다. 슬픈 역사를 억울하게 살아가는 엄마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명저고리와 엄마」는 우리의 역사적인 질곡 속에 방치된 민중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한국전쟁의 수용으로 참담한 비극적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몽실언니」와 「점득이네」가 있다. 「몽실언니」는 몽실이란 인물을 통해 작가가 역사를 보고 있는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만든다. 작품 「점득이네」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다. 민중 신학에서는 민중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점득이네」에서는 가해자의 모습인 미국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패랭이꽃」, 「바닷가 아이들」, 「다람쥐 동산」, 「산토끼」, 「별똥별」,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 「아기양이 그림자 딸랑이」, 「떡구렁이 기차」 등은 전쟁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이 산산이 파괴되어버린 모습으로 민족이 마비되어 버린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권정생은 민중의 비극적인 역사를 수용하여서 작품을 구현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구원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현재에도 휴전선(가시철망)이 버티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들 스스로가 판 구덩이에서 인간들 스스로가 일어서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우의적 환상을 사

용하고 있는 작품에서는 구원의 도식을 취하고 있다. 우의적 인물의 설정을 할 때에도 가장 하찮고 나약한 ‘민중’의 소외된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설정된(환상 공간) 우의적 인물을 통하여 민중이 구원받도록 작품화 하고 있다. 역사적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들은 그 속에 유형의 물체이든 무형의 물체로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한 장애가 극복 되어질 때에 역사적 사건들은 민중과 함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느님은 가로놓인 장애를 인간이 만들어 놓았기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작가의 의도 속에 하느님은 직접 현현하지 않으며, 소명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들이 뿌린 씨앗을 인간들이 거두어들이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체이면서 민중이 주체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민중 신학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이요,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감춰진 소명을 찾는 것이 작가가 얻고자 하였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 V. 결 론

권정생은 암흑기적인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에서 험난한 삶을 살아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비극적인 역사와 개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사의 70, 80년대에 상황이 한국기독교에서 민중 신학을 만들게 되었던 것처럼, 작가는 어두운 사회적 상황에서 출발하는 작품을 내어 놓는다. 역사적 상황은 작품의 인물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중심인물로 설정하게 되었다. “민중 신학”이 억울한 자, 눌린 자를 민중으로 바라보며 그들 중심의 역사적 관점을 요구하였던 것처럼 권정생의 작품은 민중이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권정생은 민중을 작품의 중심으로서 구성하며, 이에 더불어 하느님과 예수가 공존하는 설정으로 작품을 형상화한다. “민중 신학”이 요구하고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인물과 세계의 관계를 통해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론에서 권정생 동화에 대한 선행 연구가 아동문학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민중 신학의 관점에서 권정생 동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권정생은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의 70년대에 탄생하게 되었던 지극히 한국적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민중 신학”과 그 사상을 같이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민중 신학의 주요 개념으로 ‘민중’과 ‘민중 신학’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작가만의 독특한 기독교적 경험세계가 그의 작품세계는 물론이려니와 민중 신학 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의 전기적 접근이 민중 신학적 작품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그의 전기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이 민중 신학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Ⅲ 장에서는 권정생 동화에 드러난 민중신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작가는 상황적 동화에 나타난 현실적 이해 속에 이념적 갈등을 부정하고 있으며, 소외된 민중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작품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할 민중의 삶을 고찰 할 수 있었다.

2. 우의적 동화의 환상적 세계에서는 민중의 폭발된 혁명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표출되어진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 여기서는 민중을 ‘패배자’의 모습보다는 ‘강인한 생애 대한 의지’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역동성을 고찰해 볼 수 있었으며, 민중들의 자기 희생적인 삶에 생태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Ⅳ장에서는 권정생 작품에 나타난 종교성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자연 섭리에 따른 기독교적 고찰로 하느님의 섭리가 바로 자연의 섭리가 되며, 하느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은 곧 자연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으로 자연 섭리 속에 기독교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로 동화에 수용된 민중의 모습과 종교적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암흑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인물들을 통해 이들 앞에 놓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종교적인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는 비극적 역사 속에 감추어진 소명 의식을 분석하였다. 권정생에게 역사성은 철저히 민중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도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의 사건을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질곡 속에 방치된 인물들의 삶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민중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며, 이러한 비극적 역사의 수용을 통해 역사를 극복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기본자료

- 권정생,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_\_\_\_\_,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출판사, 1990.  
\_\_\_\_\_, 『사과나무밭 달님』, 창작과비평사, 1978.  
\_\_\_\_\_, 『하느님의 눈물』, 산하, 1991.  
\_\_\_\_\_, 『몽실 언니』, 창작과 비평사, 1984.  
\_\_\_\_\_, 『점득이네』, 창작과 비평사, 1990.  
\_\_\_\_\_,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산하, 1994.  
\_\_\_\_\_, 『슬픈 나막신』, 우리교육, 2002.  
박재순, 『열린 사회를 위한 민중신학』, 한울, 1995.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3.  
안병무,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 신학 연구소, 1982.  
임태수, 『제2종교개혁을 지향하는 민중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 2. 학위논문

- 노연경, 「권정생 소년소설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박미옥, 「권정생 동화의 리얼리즘 구현 양상과 문학 교육적 의의」,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수경,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박용안, 「1970년대-1980년대 민중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 대학원, 1987.  
백연현, 「권정생 동화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성갑영, 「권정생 동화의 교육적 가치 연구」,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오길주, 「권정생 동화 연구」, 카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윤철희, 「한국적신학에 관한연구:토착화신학과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원, 2002.  
이계삼, 「권정생 문학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옥금, 「권정생 문학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주현, 「권정생의 리얼리즘 동화와 판타지 동화 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엄혜숙, 「권정생 문학과 사상 : 기독교 아나키즘에 관하여」, 인하어문연구소, 2006.
- 정설아, 「권정생 문학연구(중·단편 동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정지훈, 「권정생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조경아, 「권정생 동화의 페미니즘적 읽기」,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최희구, 「권정생 소년 소설 연구 : 전쟁수용작품 「몽실 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황경숙, 「권정생 동화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3. 평론

- 김용락, 「영혼의 울림과 내면의 불빛」, 『지역, 현실, 인간 그리고 문학』, 문예, 1999.
- 신현재, 「권정생의 한과 낙원지향의식」, 『한국현대아동문학작가작품론』, 집문당, 1997.
- 원종찬, 「낮은 곳에 자리한 고귀한 삶의 철학」, 『아동문학의 이해와 감상』, 겨레아동문학연구회, 1996.
- 이시현, 「가난, 병고 속의 순수 동화작가」, 『동아일보』, 1986. 12.
- 이오덕, 「학대받는 생명에 대한 사랑」, 『강아지 똥』, 세종문화사, 1974.
- \_\_\_\_\_, 「소복한 삶과 따스한 인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 \_\_\_\_\_, 「인간과 생쥐의 대화로 엮은 철학」, 『삶, 문학, 교육』, 종로서적, 1986.
- \_\_\_\_\_, 「감자와 고양이와 사람이야기」,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26호, 1997.
- 이재복, 「시궁창도 귀한 영혼이 숨쉬는 삶의 한 귀퉁이」, 『우리 동화 바로 읽

- 기』, 한길사, 1995.
- 이현주, 「동화작가 권정생과 강아지 똥」, 『한송이 이름없는 들꽃으로』, 종로서적, 1985.
- 최지훈, 「비통한 역사의 서정적 증언」, 『한국 현대 아동 문학론』, 아동문예, 1991.

#### 4. 단행본

- 강영주,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 구인환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86.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6.
- 김경중, 『아동 문학론』, 신아출판사, 1994.
- 김상욱,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자연, 『한국동화 문학 연구』, 서문당, 2000.
- 노안영,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 이오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 이재복, 『아동문학 개론』 단문당, 1983.
-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3.
- 이철지억음, 『권정생의 글모음 오물덩이처럼 덩굴먼서』 종로서적, 1986.
- 임태수, 『민중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최지훈, 『한국현대아동문학론』, 아동문예사, 1991.
-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 S. 프로이트, 서식연역,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문』, 범우사, 1990.
- 마르틴 부버, 표재명역,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91.
- 발터 벤야민, 반성완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